

中原地區 文化的의

考古學的 考察

黃 龍 渾

一, 머릿말

中原地區 先史文化 遺蹟에 대한 學術 調査는 극히 最近에 와서 활발하게 進行 되었다.

中原地區는 바다와 인접되어 있지않은 內陸 地域에 位置하고 있으며 교통망의 불편 등에 의해 그 동안 많은 조사연구가 進行 되지 않았던 곳이다. 韓半島 先史時代 文化 研究 初期에는 대체로 한강의 下流 地域等 비교적 調査가 쉬웠던 地域이 그 主 調査對象이 되어왔던 關係로 漢江 의 中流 地域이며 비교적 교통이 불편했던 地域에 대한 관심이 學界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동안 이 地域의 先史文化 遺蹟에 대한 學界의 인식이 一般的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그런 結果로 우리나라의 先史文化에 대한 一般的인 知識도 자연히 해안이나 大江 流域에 한정되어 그 진모를 把握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 南漢江 中流인 忠州地方을 中心으로 제 流域 地域일대 에 대한 調査가 여러 學者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先史 遺蹟의 存在가 속속 確認되어 ① 지금까지의 우리의 지식에 根本的인

수정을 加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始作하였다. 특 히 이러한 特殊 內陸文化와 연결시킬 수 있는 地域이 淸州에 까지 이루어 있어서 이 방대한 未 調査地域에 산재한 先史文化 遺蹟에 대한 새로운 사실확인과 그 실지조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리는 韓半島文化의 實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南漢江을 中心으로 한 中原地區의 先史文化는 하나의 獨立된 文化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漢江 全 流域에 걸쳐 形成된 文化를 이해하려고 할때에는 이 地域의 先史 遺蹟은 지금까지 단순히 漢江下流나 금강下流에 집중하여 整理했던 우리의 知識을 根本的으로 수정하게 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地域의 文化의 形成과 그 內容에 대한 把握은 漢江을 中心으로 한 韓半島 中部地域 先史文化의 分布와 그 文化內容 그리고 文化性格의 設定등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예로서 지금까지의 韓國學界의 조사결과와 비추어 볼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빗살무늬 土器文化가 南漢江 中流인 이 中原文化地區에 서는 강가 유적 어디에서든 놀라울 정도로 分布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 엄청난 量의 빗살무늬 토기片들이 수집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서도 우리의 기본지식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②.

뿐만아니라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무문토기문화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調査結果는 빗살무늬 土器文化와 마찬가지로 江下流나 그 인접 저구릉지대에서만 조사하여 왔고 그 조사 內容은 극히 적은 숫자의 居住地 등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大聚落을 이루고 있는 調査地域의 발전이나 그 調査內容은 여 주근처 흙암리 遺蹟의 연차조사가 있을뿐 이러한 重要한 先史 遺蹟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忠州를 中心으로 한 中原지구의 江岸유적에서 이 무문토기문화의 大遺蹟이 發見되어 이 南漢江 中流지역의 先史文化의 性格을 定立할 수 있는 資料의 수집이 가능해 졌다. ③. 특히 韓半島 中部地域의 先史文化중 무문토기문화를 제대로 이

해하고 그 性格을 설정하려고 할 때에는 이 地域의 調査는 不可缺의 조 사대상인 된다는 사실이 明白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구석기유적이 또한 이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④ 초기 철기시대의 土器片들이 이 地域의 모—든 江岸에서 大量 發見되어⑤ 史文化的의 각시기에 대한 유적집중지역이 이 中原文化지구에 存在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해주고 있다.

또 三國時代의 遺蹟은 韓半島 內에서는 그 유래가 드물 정도의 特異한 象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⑥。 그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들의 勢力의 확장을 위해 가장 치열한 戰鬪을 치루었을 角逐 地域이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버려진 여러 類型的의 遺蹟과 고분군 등은 각각 그 性格을 달리하는 상태로 發見되고 있으며 또 그 밀집현상 또한 다른 地域에서 보다 顯著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舊石器文化에서 三國文化에 걸친 새로운 유적들의 발견은 韓半島에 存在한 各文化時期에 따르는 새로운 知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⑦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이 地域文化에 대한 우리의 再認識을 촉구 할 뿐 아니라 이 地域文化에 대한 調査研究가 시급하게 進行되어야만 우리나라 先史文化的의 精確한 內容把握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도 經濟적인 學界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最近에 와서 얻어지기 시작한 폭발적인 이 地域文化에 대한 새로운 知識은 國土開發에 의해서 새로 建設된 매칭덤과 또 建設 中에 있는 忠州 甌 甌 지구의 집중조사結果가 그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전에도 이러한 地域은 여러 史學, 民俗學 관계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차분히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온 努力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努力이 이 地域文化遺蹟에 대한 學界의 집중적인 관심을 오늘날 끝게 해주는 그 실마리가 되었던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다.

二、 中原地區 先史文化的의 分布

中原地區 先史文化遺蹟들은 現在까지 조사된 結果에 의하면 일단 南 漢江 中流 地域인 여주에서 부터 忠州를 中心으로 하여 단양에 걸친 江 岸 地域에서 집중 發見되고 있다. 그리고 淸州지역과 大淸甌 甌 수물지구의 遺蹟을 이 中原地區 文化에 包含시켜 보면 금강 上流의 江岸 地域에서 發見된 여러 遺蹟과 함께 이 文化地區에 包含되는 遺蹟地帶의 넓이와 育적의 量은 엄청나게 크고 중요해진다.

이들 遺蹟이 發見된 곳은 이 地域 전체에 걸친 종합적 집중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現在로서는 江에 연결한 조사가 끝난 地域 以外에 산재해 있을 것이 예상되는 遺蹟의 位置나 分布는 아직 분명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江과 인접한 地域인 충청대지로 이루어진 대부분 의 강안유역에서 發見되는 遺蹟의 數와 그 分布만도 그 規模가 상상외로 방대한 것이 現在 밝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학술적 집중조사도 일단 은 이러한 江岸 流域 遺蹟調査에 투입되어 왔으며 그렇게 해서도 아직 遺蹟全體에 대한 충분한 調査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강안유역 이외의 구룡이나 低山地帶 遺蹟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있을 여러 學者들의 조사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으며 현재까지의 中原文化遺蹟의 分布는 강을 따라 形成된 충청대지 위나 동굴유적에 한 정되어 있는 狀態이므로 일단 이 고찰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두고 검토가 되는 것을 밝혀두겠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舊石器時代 遺蹟으로 發表되고 있는 곳 은 忠州에서 단양에 이르는 강안유역의 동굴유적과 금강상류의 두루봉 동굴유적 매칭덤수물지역등이 發表紹介되고 있고 最近에 와서 沙器里 遺蹟이 조사되었으며 단양근처의 江岸인접지역의 또 다른 몇개의 遺蹟에 대한 調査가 현재 進行 중이다⑧。 그리고 한반도 中部지역 및 살무늬 土器 文化遺蹟으로는 이제까지 주로 漢江下流의 新石器文化遺蹟만으로 그

存在가 알려져 왔었고 그외의 유적에 대한 分布 또는 文化內容에 대한 확실한 조사 결과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없었던 것인데 最近의 中原地區 先史文化 調查結果 南漢江 中流地域인 이 中原地區 江岸의 여러 곳에서 이 빗살무늬 土器文化가 分布되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確認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도 이 文化遺蹟의 完全한 主거지나 기타 유구의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學術的인 調查를 할 수 없었던 점이다.

南漢江 中流지역인 충주댐 수몰지구 전역에 걸쳐 형성된 층적대지에서 는 거의 다 발견되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편은 거의가 지표채집물이어서 이들은 비교적 깊은 지층속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이러한 遺物들이 하나의 문화층으로 노출되어 발견된 것이 아닌 後代의 작업층에 의해 지표로 노출되는 상태에서 발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토기편은 제천군 청풍면 황석리 유적⑨, 증원군 동량면 지동리 유적⑩, 제원군 청풍면 광의리 유적⑪, 제원군 청풍면 진목리 유적⑫, 제원군 청풍면 양평리 유적⑬ 등에서出土되었다.

이렇게 忠州를 中心으로한 中原文化地區 여러 곳에서 실물을 가지고 나입은 이미 말한 바가 있으나 이들 빗살무늬 土器文化가 과연 어떠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漢江下流에 형성되어 있는 빗살무늬 土器文化와 이 지역의 빗살무늬 土器文化와의 연관관계는 명확한 것이므로 이 지역에서 漢江下流的 빗살무늬 文化가 모두다 發見될 것은 당연히 추정해 볼 수가 있다. 다만 빗살무늬 토기문화가 漢江中流 이상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는 발견인 것이다. 韓半島 中部地域의 빗살무늬 土器文化의 전파, 분포 그리고 성쇠에 대한 열쇠의 일부가 이 中原地區 文化遺蹟에서 찾아질 것은 확실하다.

빗살무늬 土器와는 달리 무문토기文化에 대한 것은 이제 그 實態가 드러나기 始作하고 있다.

忠州를 중심으로한 中原地區 先史文化遺蹟 中에서 현재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分布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無文土器文化遺蹟들을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 유적은 現在의 조사 결과로서 볼 때 거의 모든 江岸의 층적대지 위에서 다 發見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들 文化遺蹟은 상당히 넓은 면적에 엄청난 유구들이 집중 발견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無文土器文化의 대추락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中原地區 先史遺蹟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사실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一九八二년에 있었던 忠州댐 수몰지구 긴급발굴조사 결과에서 비로서 확인되었으며 이 조사 결과는 中原地區 內의 文化遺蹟에 대한 學界의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現在까지 韓半島의 大江下流流域에서 無文土器 住居址 등의 발견조사는 자주 있었으나 대개가 단편적인 소규모 조사에 그쳤고 다만 서울 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여주 흙암리 구릉지대 住居址 밀집유적의 발굴이 가장 큰 無文土器 住居취락에 대한 學術的인 發見을 始作하였다.

그러한 無文土器遺蹟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서 얻어진 정보는 극히 한정된 것이어서 아직도 韓半島 無文土器文化의 그 基本性格이나 內容 또는 그 文化의 변천과정 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狀態임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狀況에 비추어 볼 때 忠州를 中心으로한 中原地區 文化遺蹟 中에서 이 無文土器文化의 거대한 遺蹟들의 分布가 달려졌다는 사실은 漢江을 따라 형성한 無文土器文化의 基本性格을 정립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가장 큰 資料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重要な 것이다.

無文土器文化는 南漢江 中流 江岸一帶의 층적대지층에서는 거의 다 發見된다. 無文土器遺蹟이 층적대지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른 지역의 발굴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 대개 무문토기 후기 유적의

分布地域으로는 강가와 연결되어 있는 낮은 구릉지대에서 發見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수몰이 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들 無文土器遺蹟은 江岸에서만 發見되었던 것이다. 충추를 中心으로한 文化유적권이라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엄청난 수와 크기의 遺蹟들이 江가 뿐만 아닌 이 지역 일대에서 發見될 것은 명확하다. 現在까지 정리된 無文土器遺蹟 分布調査地域은 제원군 청풍면 양평리유적¹⁴, 제원군 청풍면 광의리유적¹⁵, 제원군 동량면 지동리유적¹⁶, 제원군 청풍면 방홍리유적¹⁷, 제원군 문의면 가호리 아득이유적¹⁸, 제원군 금가면 월상리 A·B 유적¹⁹, 제원군 금가면 오석리유적²⁰, 제원군 금가면 용교리 유적²¹, 제원군 금가면 장천리 유적²²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 發見된 無文土器도 그 종류가 여러가지로 다른 것이 보고되어 있다. 결국 無文土器文化의 각 시기에 속하는 유물들이 고루 發見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學問的인 重要性을 더욱 實證하게 해준다. 즉 이 지역에서는 조질 공열식 無文土器와 경질 적갈색 무문토 기종도편 등이 발굴조사시에 출토되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문화와 연결되는 여러형태의 석기도 발굴보고되고 있다. 이 전체 유물에 대한 연구조사는 앞으로의 학계의 과제로 남아있지만 일단 重要한 無文土器遺蹟의 存在와 이들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수의 유적이 정식 조사 發見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학술적 資料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충추수몰지구 調査結果는 중요하다. 수몰지구 내에 있는 이들 유적에 대한 초보적인 긴급조사는 지난 二년동안 이루어 졌지만 그러나 진정한 學問的 結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들 유적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조사가 있어야 얻어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韓半島 中部地域에서 발견되는 無文土器文化의 性格을 결정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基本資料들이 얻어질 수가 있겠다.

많은 無文土器文化 住居址遺蹟과 함께 發見된 支石墓遺蹟 中에서 한 반도 支石墓研究를 위해서도 상당히 重要한 資料들이 이 中原地區에서 발견되고 있다.

忠州를 中心으로한 南漢江 中流地域 전역에 걸쳐서 發見되는 支石墓群들은 벌써 一九六二年에 이미 學界에 주목을 끌었었으며 그 후 대청댐 수몰지구 조사이 상당히 많은 수의 支石墓가 조사되었고 또 이번에도 있었던 충추댐 수몰지구 발굴조사에서도 역시 상당히 많은 수의 중요한 支石墓遺蹟들이 發掘調査되어 學界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支石墓의 分布도 역시 이 지역의 無文土器 住居址遺蹟과 마찬가지로 江岸에 인접해 있는 충추대지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때로는 一基 내지 二基가 發見되기도 하지만 군집하여 發見되는 곳이 많아 韓半島 支石墓研究의 중요한 유적집중지역의 하나로 밝혀졌으며 좋은 學術資料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특히 소위 北方武이라고 알려졌던 支石墓에서부터 기반석이나 무지석식 지석묘에 이르는 모든 基本 形態의 支石墓들이 발견되어 韓半島 中部地域의 支石墓의 分布와 그 형태에 따르는 變化 등을 設定할 수 있게하는 새로운 학술자료가 제공되었던 것은 특기할 만한 성과이다.

특히 黃石里의 支石墓群의 發掘은 전에 國立博物館에서 실시된 이후 이번에 全面的인 재發掘이 이루어져서 많은 문제점이 보완되었던 것과 또 無文土器住居址와의 연관을 지어 볼 수 있는 支石墓遺蹟이 發掘調査된 것이 상당수에 이르러 이들 支石墓의 형식과 無文土器文化와의 연관 관계도 아울러 규명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원지구 先史文化遺蹟址에서 發見되는 支石墓의 分布地域은 제원군 청풍면 계산리 B·C 유적²³, 제원군 청풍면 광의리유적²⁴, 제원군 청풍면 황석리 B 유적²⁵, 제원군 청풍면 방홍리유적²⁶, 옥천군 동이면 석단리 안터유적²⁷, 제원군 청풍면 양평리유적²⁸, 제원군 가금면 탑평리 유적²⁹ 등이 있다.

특히 하천리에서 發掘調査된 支石墓는 그 내용과 출토유물의 特殊性 때문에 學界의 주목을 끄는 유적이다. 이 地域에서 發見된 支石墓는 尙後期의 것으로서 그 다음 시기에 나타나는 瓦質토기문화와의 연관성을 밝혀줄 수 있는 遺蹟으로 韓半島 中部地域에 文化시기의 연관관계를

밝혀주는 材料이다. 결국 이 충원지역에 支石墓들은 초기형태에서 부터 쇠말기의 쇠형태의 것까지 다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의 조사로서 밝혀볼 수가 있었다.

江岸遺蹟에서만 밝혀진 사실이 이토록 중요한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인접 구릉지대와 아직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支石墓群에 대한 앞으로의 調查結果로서 상당히 새로운 지식을 보일 수 있게 할 것은 틀림없다.

이와같이 中原을 中心으로 한 南漢江地域에서 調查發見된 이 수많은 支石墓의 존재는 前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地域이 韓半島先史文化研究에서 빼놓을 수 없는 遺蹟의 집중지대임을 새삼 밝혀주고 있다.

이 中原地區遺蹟內의 초기철기시대 遺蹟에 관해서 그전에는 거의 발견 보고된 것이 없다. 그러나 最近의 조사에 의해서 수많은 초기철기시대 土器片이 거의 모든 江岸 遺蹟에서 발견됨으로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밀접된 유적의 존재가 發見된 것은 특기할 만한 새로운 조사 성과였다. 최근에 와서 이 유적들이 確認되었는데 그것은 충주댐 수몰지구 조사시의 地表調査 과정에서 밝혀졌었고 거의 모든 조사대상 지역 내에서 이들 土器片들이 발견 수집되었다.

이러한 초기철기시대 토기편이 집중채집된 지역에는 제원군 청풍면 양평리 C유적³⁰, 증원군 금가면 월상리 A·B유적³¹, 증원군 금가면 용교리 A유적³², 증원군 가금면 탐평리 A유적³³, 제원군 청풍면 광의리 A·B·C유적³⁴, 제원군 청풍면 황석리유적³⁵, 제원군 청풍면 진부리유적³⁶, 증원군 산척면 명서리³⁷, 증원군 동량면 하천리³⁸ 등이 있다.

이외의 江岸 충적대지 상에서도 이 시기의 土器片이 몇점씩 發見되고 있어서 초기철기시대 遺蹟分布는 無文土器遺蹟 分布보다 더 넓은 地域에 걸쳐 發見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초기철기시대유적인 住居址나 기타 유구에 대한 정식 發掘調

査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現在로서는 그 유적의 內容을 밝힐 수 있는 研究調査된 자료는 없었다. 유구등이 조사되지 않은 원인은 대부분의 유구가 경작등에 의해서 파괴되고 最近의 조사지역내에서는 이들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그 중요조사 대상에서 빠진데에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들 유적에 대한 學界의 관심이 좀 더 있어야 하겠으며 또 이 초기철기시대 문화에 대한 집중조사가 여러 관계기관의 배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一九八三년도에 있었던 충주댐 수몰지구 조사시에 지동리의 江岸대지 위에서 四基의 초기철기시대 적석토광묘가 정식 발굴되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으며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조사를 거쳐 그 내용을 밝혀볼 필요가 있다.

中原地區文化遺蹟中 가장 많이 發掘되고 또 우리의 古代史에 큰 影響을 미치는 時代의 遺蹟으로는 三國時代의 유적을 들 수가 있다. 古墳, 山城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이들 遺蹟은 江原안 뿐만 아니라 平地, 山城의 밀집현상은 韓半島 古代遺蹟中 가장 조밀한 유적의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地域은 三國時代에는 군사적 요충으로 한때 高句麗가 점유하기도 하였고 또 백제의 세력권에 들어가기도 하였다가 三國統一後에 新羅勢力下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이곳의 古墳群의 내용과 山城의 位置 등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韓國古代史의 가장 치열한 三國間의 戰鬪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것은 이곳이 바로 三國 사이에서 서로 침공 내지 방어를 시도하여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中原地區文化遺蹟中에서 발견하는 이들 三國時代 遺蹟의 정확한 分布와 그 內容의 把握은 아직도 해결되어 있지않은 三國時代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줄 것이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에 의해 거듭 言及되어 왔던 사실들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古墳群이나 山城 등의 유적分布는 수몰지구 강연안 뿐만 아니라 상당히 넓은 평야, 산지 등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 지금까지

보고된 유적의 分布는 청원군 상장리유적³⁹, 청원군 미천리유적⁴⁰, 옥천군 석탄리유적⁴¹, 옥천군 산계리유적⁴², 괴산군 추산리유적⁴³, 괴산군 대사리유적⁴⁴, 음성군 도청리유적⁴⁵, 음성군 능산리유적⁴⁶, 단양군 현곡리유적⁴⁷, 단양군 하당리유적⁴⁸, 단양군 가대리유적⁴⁹, 충원군 무능동 A지구유적⁵⁰, 충원군 가금면유적⁵¹, 충원군 미륵리유적⁵², 충원군 누양리유적⁵³, 충원군 담평리유적⁵⁴, 제원군 양평리유적⁵⁵, 제원군 로터리유적⁵⁶, 제원군 제산리⁵⁷, 제원군 연곡리유적⁵⁸, 제원군 사기리유적⁵⁹.

이들에 대한 내용의 조사결과와는 韓半島의 古代國家의 각축상을 알려 줌과 동시에 그들의 세력권의 성쇠를 유물을 통한 학술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韓國古代史의 결정적 학술자료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국의 세력확장을 위한 충분한 증거는 이곳 中原地區 유적조사에서 찾아질 수가 있다. 특히 이러한 三國의 各축의 결과가 결국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지역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만, 앞으로의 조사가 이러한 학계의 요망에 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 비로서 中原地區文化가 가진 진정한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받게 될 것이다.

三、中原地區 先史文化的 考古學的 性格

中原地區 先史文化遺蹟(표 二·一)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舊石器遺蹟이 된다. 이 地域에서 조사된 最初의 遺蹟은 一九七三年에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짐발동굴遺蹟이다⁶⁰. 그 후 청원 두루봉유적의 發掘이 있었고⁶¹ 샘골의 遺蹟등의 조사 보고가 있었다⁶². 그리고 一九八二年 충주댐 수몰지구 조사에서 사기리遺蹟이 보고되어 있고⁶³ 一九八三年 조사에서도 몇개의 遺蹟調査가 발표되었으나 그 보고서는 아직 간행되고 있지 않다.

이 중에서 점말·두루봉동굴은 前期舊石器時代에서 後期舊石器時代

에 걸친 文化層이 發見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도 一) 이들 유적에서는 動物化石의 대량 발굴이 있어서 흥적세 動物化石의 研究材料를 제공해 준 점에서 대단히 重要な 遺蹟들이다. 다만 이 遺蹟에 대한 絶대年代 추정에 있어서 발굴 담당자와 그 외의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文化性格 設定에도 異見이 있어서 現在로서는 아직도 그 내용에 대한 學界의 일치된 견해가 없다.

점말동굴遺蹟은 一九七三年에 제원군 송학면 포전리 점말에 있는 석회암동굴에서 발견된 遺蹟이며 그 후 一九七三年에 정식 발굴조사를 시작한 동굴유적이다. 이 遺蹟에서 수 많은 짐승의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화석들이 前期구석기시대에서 後期구석기시대에 걸친 장구한 기간 동안에 사람의 의해서 사냥되어 식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⁶⁴. 이 유적에서 발견되는 人工遺物로서는 불면 화덕자리, 골각기, 석기 등의 遺物의 發見보고가 있으나 석기의 경우 그 형태나 수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고는 없고 단 한점의 석회암 자르개로 보고된 석기가 있을 뿐이다. 점말동굴에서 발견된 動物化石은 한반도 南部에서 발견된 최초의 흥적세 동물化石으로서 그 학술적 가치는 대단히 큰 것이다. 그러나 이 짐발동굴 유적에서 사람이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제시가 미흡한 것은 이 동굴遺蹟의 성격 설정에 결정적인 약점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동굴유적이 구석기時代의 文化遺蹟이라는 것을 확증지어 줄 수 있게 하기에는 보다 수궁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와 석기의 발견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남쪽할만한 석기의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유적이 구석기文化遺蹟일 수 없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수 많은 골각기의 발견을 보고하고 있는데 골각기로 보고된 遺物 自體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약점이 있다. 찌르개로 보고되어 있는 수많은 골편은 인간 아닌 다른 동물에 의해 파쇄된 骨片들이 그와 비슷한 형태를 갖춘 경우들이 많이 있고 地 庄에 의해 파쇄된 동물뼈가 오랜 시일 동안에 地中에 묻혔을 경우와 같이 만든 것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사실을 외면할 수가 없다. 골각기를 갈아

표 2 先史遺蹟 出土遺物

新石器遺蹟									舊石器遺蹟				文 化
청 원 아 늑 이	옥 천 안 터	방 흥 리	황 석 리	지 동 리	광 의 리 A	계 산 리 B	진 부 리 A, B	양 평 리 B	샘 골	사 기 리 창 리	두 루 봉	점 말	遺 蹟
											○	○	동 물 골 각
												○	화 석 기
													타 제 유
										○			암 석 기
										○			문 물 개
										○	○		개 개 개
										○	○		호 요 찌 르
											○		찌 르 개
										○			찌 조 개
○										○			조 각
			○	○	○		○	○		○			빛 살 무 늑
○		○		○	○			○					토 기 무 스
								○					크 크 퍼
			○					○					크 석 추
								○					어 망 반
				○	○			○					형 석 도
													월 돌 바
													돌 바 족
													화 살 돌
													돌 도 편
				○									홍 도 석
				○									마 제 돌
○								○					부 골 돌
													타 제 돌
	○							○					눈 돌 전
													석 간 토
													은 색 기
	○												돌 지 킴
	○												마 제 유
													문 석 추
													유 문 석
													추

遺

物

표 1 선사 유적 분포

舊石器遺蹟	新石器遺蹟	—무문토기 —빛살무늬	—무문토기
점 루 말	양 평 리 B	진 목 리 A, B	계 산 리 B 광 의 리 A 지 동 리 B 황 석 리 B
두 루 봉	주 거 지	주 거 지	계 산 리 B 계 산 리 C 광 의 리 방 흥 리 옥 천 안 터 황 석 리 A 청 원 아 득 이
一九七三	一九八二	一九八二	一九八二
청원 두루봉 제 2굴 구석기문화 중간 보고서	八二,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 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八二,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 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八二,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 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一九八一	一九八二	一九八二	一九八二
청원 두루봉 제 2굴 구석기문화 중간 보고서	八二,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 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八二,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 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八二,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 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一九七八	一九七八	一九七八	一九七八
대청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 보 고서	대청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 보 고서	대청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 보 고서	대청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 보 고서
一九七七	一九七七	一九七七	一九七七
대청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 보 고서	대청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 보 고서	대청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 보 고서	대청댐 수몰지구 유적 발굴 보 고서

만들었다고 하면 가는데 사용한 모루돌이나
나 점말돌굴의 경우 그 수 많은 골각기의 보고에
비해서 이러한 연장을 제작할 수 있게 만든
기본 도구였던 여러가지 석기의 존재가 전혀
없다

는 사실은 이 돌굴유적이 舊石器文化遺蹟이 아닐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슴발등뼈로 만든 창골이라는 골각기(66)는 작은 짐승등에 의해 갈아먹힌 사슴뼈로 보인다는 보고가 이러한 骨刻器의 연장여부의 애매성을 밝혀주고 있다(65). 특히 이 돌굴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여러가지의 뼈조각품의 내용도 극히 수궁하기 힘든 견해인 것이다. 中期舊石器時代의 조각품으로 보고된 사슴의 엉덩뼈를 뼈어서서 있는 곰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는 예술품이라는 뼈조각과 코발소 앞발뼈 끝쪽 넓은 면에 새겨진 두 눈과 입은 사람의 얼굴을 나타낸 예술품이라는 뼈조각과 사슴의 등뼈 中에서 제 7번으로 보이는 것의 솟기를 뼈어 내고 양옆의 우뚝한 쪽에 구멍을 하나씩 뚫고 위로 솟은 받침부분에 두출씩을 새겨서 마치 짐승의 얼굴形狀을 나타내려한 뼈 예술품이라고 보고된 골편들이 이 점말돌굴의 대표적인 인공예술품으로 설명되고 있으나(67) 이러한 뼈조각을 인공품으로 보는 데도 문제가 있으며 특히 물상을 나타낸 조각품으로 보는 데에는 더 더욱 납득할 만한 근거제시가 부족하다.

이러한 인공예술품으로 발표된 것이 학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보다 더 정확하게 인공이 가해진 흔적의 제시가 없는 한 예술품으로의 성격정립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결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말돌굴의 내포하고 있는 학문적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홍적세의 자연환경과 동·식물성을 밝혀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재료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발견되고 또 수많은 유물이 집중 발견되어 채집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여기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하여 우리는 홍적세에 살았던 멸종동물의 종류와 형태를 밝힐 수 있으며 이러한 동물이 살았던 사실에 근거를 두어 그 시기의 자연환경까지를 花粉, 지질 등과 연관시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재구성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적이 中原文化地區 內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 文化地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는 일이다.

두루봉洞窟은 점말洞窟에 버금하는 중요한 홍적세 動物化石 遺蹟의

하나이다. 이 遺蹟은 청원군 가덕면 노현리 산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俗稱 두루봉으로 알려져 있는 석회암 광산에서 발견되었다. 이 洞窟에 대한 調査는 一九七六年에서 一九七八年에 걸쳐 조사되었는데 洞窟에 들어 발견되는 것과 같이 수많은 홍적세 動物化石이 이곳에서 채집되었고 이 역시 前期구석기시대에서 後期구석기시대에 걸친 장기간의 動物堆積遺蹟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⁶⁸). 이 유적에서 발견된 遺物을 通해 본 分析結果 骨角器 石器 藝術 조각품의 出土遺蹟이라고 설정되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遺蹟 역시 洞窟과 같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도구가 骨角器이며 石器도 보고되어 있으나 그 수는 몇점에 불과하다. 骨角器의 경우는 두루봉洞窟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인공이 가져져 만들어진 골각기라는 근거 제시가 충분치 않다. 특히 뼈道具로 발표된 것 중에서 쉽게 톱니날연모 흉날연모 등의 보고는 지극히 받아들일 수 없는 分類인 것이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뼈로 만든 骨角器의 製作기법에 대해서 石器製作기법을 그대로 대입시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骨角器製作方法을 무시한 技法的인 정리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톱니날을 만들기 위하여 쌍날 잔손질(Bifacial retouches)의 기법을 사용했다는 묘사 자체가⁶⁹ 骨角器製造기법을 모르는 입장에서 정리된 것이다. 그것은 동물뼈를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경우 뼈의 構造上으로 bifacial retouches가 사용될 수 없으며 특히 뼈가 가지고 있는 아교질과 組織의 방향에 의해서 뼈는 잘라지거나 깨지며 兩面으로 얇게 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을 石器製作기법으로 분류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하여 骨角器로 규정할 기준에 根本的인 모순이 있다. 石器의 경우도 보고된 사진에서 판단할 때에 이것은 전형적 石器로 보기 힘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수량 역시 적고 기형에서도 인공이 가해진 痕迹이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이 石器에 대한 判定를 다시 재고하게 하고 있다. 결국 이 두루봉遺蹟의 도구들에서도 그것을 도구로 判定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科學的인 근거提示가 빈약하며 이것이 道具라는 學界의 인정을 받게 하려고

할 때에도 보다 많은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提示가 先行되어야 하겠다. 두루봉洞窟의 경우 인공이 가해진 수많은 藝術品의 出土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 藝術品이라는 물건에서도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說得力이 부족하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예술품으로써 圖形예술품, 새겨진 藝術品, 치레걸이 등으로 分類되는 遺物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種類로서는 얼굴모양 예술품이 5개, 짐승모양 藝術品이 5개, 멧돼지 치레걸이 2개, 들소모양 藝術品 새 身體 조각품이 2개, 물고기 彫刻品이 2개, 산경구멍 彫刻品, 食肉類(호랑이?) 1개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⁷⁰ 圖形藝術品으로서 어떤 圖形을 새긴 것 틀이라고 서술된 것이 보고되어 있고 새겨진 藝術品으로서 뼈와 돌에 조각으로 남자 3사람과 여자 1사람의 관계를 彫刻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뼈 彫刻과 자갈돌 위의 앞·뒷면에 많은 가는 줄이 새겨져 있으며 한쪽 면에는 $4 \cdot 5 \times 5 \cdot 5 \text{ mm}$ 의 크기로 칼질하기로 짊어져 패여져 있다⁷¹). 그리고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 서술내용으로만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일단 發掘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물건을 예술품으로 分類·整理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치레걸이로 分類한 유물에는 動物의 발가락 뼈를 사용하여 裝身具로 썼다고 하는 유물들이 4점 보고되어 있다⁷²).

이렇게 보고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이것을 예술품이고 인공이 가해진 물건이라고 설정한 데에는 지극히 否定的인 側面이 더 강력하게 露出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뼈에 새겨진 흔적 3점이 人面을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다. 舊石器遺物의 경우가 그것이 어떠한 물상을 表現하려고 할 때에는 긴 뼈表面에 단순한 점들로 인간을 표현하는 象徴的기법은 구석기시대 遺物에서는 단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확실한 물상 조각이 있는 곳에서 未完成 제작품에서나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대개의 구석기 藝術品의 경우 그들은 가능한 한 事實主義的 表現을 시도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조사結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뼈 彫刻으로 보고된 것

은 인공이 가해진 물건이라기 보다는 自然的이거나 다른動物에 의해서
급한자리로 보여지며 이것이 人工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
다 科學的 근거가 提示되어야만 하겠다.

現在까지의 발표자료에 근거를 두었을 때 이 遺蹟이 구석기시대의 人
類文化遺蹟으로 정리하기 보다는 일단 중요한 有機世 동물化石遺蹟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이며 구석기시대 遺蹟으로서의 확실한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이것을 文化遺蹟으로 설정하는 것을 일단 보류하는
것이 보다 학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두루봉洞窟遺蹟의
중요성은 점말洞窟遺蹟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한반도 古代動物研究에 決
定的인 재료를 提示해주는 重要遺蹟인 것은 간과할 수가 없다. 이러한
遺蹟이 한반도 南部地方에서 유일하게 中原地區 先史文化圈 속에서만 발
생된다는 사실은 이 中原地區의 學術的 중요성을 再認識시키고 있는 것
으로써 學界에 새로운 관심의 對象이 되고 있다.

一九八二年度에 發掘된 沙器里遺蹟은 발굴과정에서 이미 이 遺蹟은
유실된 地層에 包含되어 있던 유물이 그後 밀바다 자갈층에 섞여 發見된
것이 밝혀져서 대체로 後期구석기遺蹟의 흔적을 발견한데에 그쳐 아취
음을 남기는 遺蹟이었다(도二)。 다만 이 유적의 다른 지점에서 아직도
原狀態대로 地層에 包含된 文化層遺物 發見을 기대할 수가 있어서 보다
자세한 계속적인 조사가 必要하다는 조사 담당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릴
必要가 있겠다.

발굴 보고서에서는 :

1) 창내에서 출토된 등근밀개의 형태, 오리나시앙 잔손질 등 제작수
법으로 미루어 창내 유적의 시기는 후기 구석기시대 중기에 해당되
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등근밀개가 다수 출토된 것에 근거하
여 창내 후기 구석기시대 문화층의 이름을 우선 『등근밀개·늑개 문
화층』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 나무줄과 흑요석 등을 시료로 자연과학 방법에 의해 절대연대 측
정을 하여 연대를 확실하게 하면 창내유적의 성격이 더욱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3) 창내 유적을 계속 발굴하여 문화내용을 전체로 파악하도록 하고
아울러 총주령 수물지역으로서 발굴예정 지역인 단양 수양계유적과
중원 큰 길가유적도 발굴하게 되면 남한강 유역의 구석기시대 유적
과 문화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속된 계획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 문화연
구가 더욱 진전될 것임은 두말할 것 없다.

이러한 보고 내용에 의해서는 우리는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물포함층
이 계속 발견될 것이 밝혀져 많은 기대를 걸게해주고 있다(도三)。

대 청

中原文化地區에서 發見된 또 하나의 舊石器遺蹟은 대청범 수물지구내
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遺蹟은 청원군 문덕리 四八一번지 샘골 부락이
라는 앞은 대지 위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發掘結果로서
이들은 석장리에서 발견된 後期舊石器遺蹟인 새기개 밀개 文化層과 비
교되는 같은 계통의 遺蹟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여기에서 發見된 遺物
은 모두 四九九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유물
이 격지石器인 늑개, 밀개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遺蹟은 이미 水沒되
었으며 단지 출토 수집된 遺物에서 그 性格을 찾아볼 수 밖에 없다. 發
掘報告書에 의하면 여기에서도 얼굴形態彫角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이 역시 自然石 破片 위에 남겨진 흔적을 가지고 예술품으로 보고한 것
으로서(도四) 지구히 애매한 유물이다. (도三)

이 유적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發掘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정
확한 성격을 실정하기 힘들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遺蹟이 여러곳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앞으로의 정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조사보고된 遺蹟의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 有機世의 動物化
石遺蹟과 舊石器文化遺蹟 등이 이 忠州를 중심으로한 中原文化地區內
에 상당히 많은 遺蹟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中原地區 先史유적 文化圈에 있어서 舊石器遺蹟에 대한 앞으로의 더 많은 유적 발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 地域이 중요한 구석기文化遺蹟의 集中地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一九八三년도인今年에도 발굴조사가 여러 곳에서 계속 이루어졌고 新聞 등에서 三〇萬年前부터 靑銅器時代에 걸친 各時期의 文化가 發見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新聞發表報導를 基本資料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問題는 앞으로 學界의 충분한 考察과 세밀한 조사分析 結果에서 그 絶代年代나 文化性格 등이 규명지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新石器時代에 속하는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된 地域은 江岸에 형성되어 있는 臺地위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유적의 분포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大部分의 빗살무늬토기는 地表採集片이며 發掘過程에서 採集된 빗살무늬土器片들은 제원군 청풍면 진목리 A-B 地區와 忠원군 동량면 지동리 그리고 산척면 명서리의 江岸臺地 상에 형성되어 있는 無文土器 住居地의 발굴과정에서 採集된 것이다.

이들 빗살무늬토기가 발굴과정에서 採集되었다고는 하나 빗살무늬住居地遺蹟과 直接 關聯되는 상태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無文土器 住居地의 바닥 흙 속에 섞여 발견된 것으로서 이들은 유입되거나 무문토기인의 土壤採取時에 混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빗살무늬土器遺蹟은 이러한 發掘地域 근처의 가까이에 存在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비교적 깊은 地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유구는 아직 正式調査된 것이 없다. 그러나 江줄기를 따라 상당히 넓은 地域에 걸쳐 이 빗살무늬土器文化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또 이러한 土器片을 통해 그 土器가 빗살무늬土器文化의 어느 時期의 것인가 하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遺蹟의 발굴을 통하지 않고는 이 文化의 性格이나 그 傳年상의 位置는 設定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유적들에 대한 관심있는 조사가 앞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現在까지 채집된 빗살무늬土器片의 태도, 문양, 저부의 파편 등을 통해 볼 때에 타지역 특히 한강하류의 빗살무늬土器文化와 비교해 볼 수는 있다. 즉 정연한 魚骨文을 가진 典型的인 토기문양이 이곳에서 발견되어 이미 알려져 있는 他地域의 中期 빗살무늬土器와 연관시킬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보다는 훨씬 퇴화된 태선문을 사용한 後期 빗살무늬土器片들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앞으로의 調査研究 結果를 기다려서 그 성격 등이 확정될 수 있으며 傳年상의 位置도 設定되어 가능해진다. (△四四)

無文土器文化遺蹟은 이 中原地區 先史文化에서 가장 많이 또 넓게 분포되어 發見되는 遺蹟들이다. 특히 韓國先史考古學研究에서도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방대한 취락의 형성인 이 地區內的 江岸층적 대지 상에서 發見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무문토기片들이 발견되어서 이것이 무문토기遺蹟임을 알 수 있게 하는 地域들은 中原文化地區 內的 모든 江岸대지 위에 분포되고 있다. 이들 遺蹟의 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韓半島 무문토기遺蹟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또 그러한 유적들이 이 지역에 密集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調査結果 밝혀졌다. 中原文化地區內的 이러한 유적들은 제원군 청풍면 양평리유적, 제원군 청풍면 광의리유적, 忠원군 동량면 지동리유적, 제원군 청풍면 방흥리유적, 忠원군 문의면 가호리 아득이유적, 忠원군 금가면 월상리유적, 忠원군 금가면 오석리 A·B유적, 忠원군 금가면 용교리유적, 忠원군 금가면 장천리유적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중 지금까지 發掘調査된 地域은 忠州를 中心으로 한 곳으로서는 一九八二년에 실시된 堤原郡 淸風面 陽平里 B地區, 鷄山里 B地區, 廣儀里 A地區, 황석리 B地區, 진목리 A-B地區가 있다.

이 査調에서는 양평리 B地區에서 住居址一, 계산리 B地區에서 住居址三, 광의리地區에서는 住居址二 등이 調査報告되었고 그 遺蹟의 구조

와石器, 土器片 등의 遺物이 査집된 것이 正式報告되고 있다.

양평리 B地區에서의 調査는 一九八二年 七月二일부터 一九八二、八、二五까지 사이에 發掘된 住居址 遺蹟에 대한 것으로서 이 유적에 대해서 발굴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도五〉

『우선 이곳에 나타나는 層位는 셋인데, 첫째 上部의 攪亂層으로서 表土層, 둘째 그 밑에 無文土器層으로서의 赤褐色粘土層, 그리고 그 아래 빗살무늬土器層으로서의 灰白色모래층, 그 이하는 洪水로 인해서 만들어진 層位로 生土에 해당한다 하겠다. 洪水로 인해서 대부분의 遺物은 表土層에서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빗살무늬土器, 無文土器, 金海土器, 그리고 歷史時代의 磁器가 모두 나타난다.

여기에서 빗살무늬土器가 나타나는데 이들 빗살무늬土器는 漢江邊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전형적인 土器가 아니라 無文土器와 같은 胎土質의 빗살무늬土器로서, 빗살무늬土器時代의 最末期에 해당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遺蹟은 빗살무늬土器에서 無文土器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것으로서 時間的인 差異가 있는지, 또는 共存關係였는지는 確實히 알 수 없으나 共存되는 경우가 많아 거의 兩者는 時期的으로 비슷한 關係에 있으며, 이와 비슷한 遺蹟으로 內陸江岸 丘陵遺蹟인 坡州交河里, 玉石里 또는 驪州 欣岩里 등의 地域이 있다.

이곳에서 發掘調査된 遺蹟은 두 곳으로서 無文土器時代의 住居址와 積石遺構이다. 住居址는 東西長軸6m, 南北長軸4m의 長橢圓形으로 光州 松岩洞이나 松菊里에서 發見된 形態와 유사하다. 그리고 出土遺物은 전형적인 靑銅器時代의 欣岩里 住居址 出土遺物과 같다. 따라서 이 住居址의 年代는 口脣部에 刻目이 있는 孔列文土器라든가 기타 紅陶, 打製石斧類 등에 따라 그 年代를 최소한 시기전 五世紀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다른 遺構는 積石塚으로서 이것은 住居址가 나타난 褐色粘土層의 下層部에 該當하는 明褐色모래층에 축조한 것으로서, 모래층 下部의 生土層에 해당하는 明褐色粘土層 위에 직경 二〇~三〇cm의 둥근 벚돌을 간후 그 위에 屍體를 안치하고 割石을 덮고 주위를 모래로 덮었

던 것으로서 人骨은 出土되지 않았으나 人骨이 위치했던 部分의 흙이 검게 부식되어 있었다. 副葬品이 없어 出土遺物은 다양하지 않으나 積石部 주변의 모래층에서 빗살무늬土器片 一점과 無文土器片 수점이 出土된 것으로 미루어 最小限 無文土器時代 以後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積石塚은 오히려 빗살무늬土器時代의 유적인 矢鳥의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곳 遺蹟地는 빗살무늬土器時代의 傳統이 남아 있는 無文土器時代의 遺蹟으로서, 年代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늦어도 西紀前 五世紀頃으로 잡아 볼 수 있으며, 이 時代의 生業經濟로서는 여기서 出土된 遺物로 보아 수렵, 어로, 농경에 依存했으며, 빈번한 漁網 錘의 出土로 보아 또 이곳이 地理的으로 江과 隣接한 山間內陸地方인 까닭에 단백질의 根源을 江에서 잡은 민물고기에 依存했었던 바크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활석(양평) 세인(영천) 정관암(남한강 상류) 砂岩 등은 당시 住民들에게 있어 日常生活에 必要的한 도구제작에 他地方에 비해 커다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一九八二、八、二五).

附記.. 住居址 內部の 爐址에서 査집한 木炭과 土器片을 미국에 분석의뢰하였던 放射性炭素(C)年代 측정 결과가 먼저 나와 住居址 年代의 一端을 알 수 있게 되었다. 美國(Kruger Enterprise, Inc. Geochron Laboratory Division)에 依하면 測定을 依賴한 木炭年代는 二七八五 ± 一六五 B.P.로서, 이 住居址가 최소한 六~七 B.C에 해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㉞.

이러한 發掘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遺蹟의 성격이 無文土器 代表遺蹟의 하나임을 알게 하고 또 대취락의 이 地域에 形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고 있다.

제원군 청룡면 계산리 B地區에서 調査된 內容은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도六〉

『一號와 二號 住居址는 이미 걸치거나 支石墓에 의해 파괴되어 그 원형을 完全히 복원해 볼 수 없는 住居址遺蹟들이었기 때문에 完形주거

지의發掘이 必要하여 B Z Grid와 연결되는 南쪽 方向에 $2m \times 1m$ 의 三個 Grid를 東쪽에서 西쪽으로 가면서 설정하고 G·H·I의 三개 새 Grid를 설치하여 發掘을 시작하였다. 이 새 Grid의 설정에 의해서 원형을 손실 당하지 않은 三號 瓦甍주거지를 發見하여 이 地域 無文土器住居址의 形態와 내용을 밝힐 수 있는 資料를 채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瓦甍 住居址는 長이가 3m 폭 2m의 짧은 瓦甍형의 주거지로서 東쪽 끝에 出入口가 있고 큰 기둥을 四個 세우고 또 중간에도 세워 상부지붕구조를 받쳐 들고 있고 이들 큰 기둥 사이에는 작은 나무기둥을 박아 벽면의 붕괴를 방지한 수혈식 住居址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住居址에서는 中央에서 西쪽으로 약간 처진 장소에서 三개의 큰 河川石을 찾았는데 이들은 그 위에 여러개의 타격 흔적이 있어서 石器製作의 대석으로도 사용하고 때로는 나무열매를 까는 도마 등의 일종의 生活用具의 역할을 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대석을 중심으로 하여 西쪽과 北쪽 편에서 불에 탄 재와 작은 탄화물이 집중발견되어 이곳이 노지의 자리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住居址 內에서도 많은 無文土器片들이 發見되고 未完成 石器나 석기를 제작할 때 使用한 河川石 및 파편이 넓게 發見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물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여기도 역시 경작의 影響을 받아 토기편 등이 작게 부서져 있었으며 瓦甍형토기를 만들 수 있는 材料의 수집이 없었던 것이 아쉽다. 일단 이 地域의 주거지 形態와 그 内部構造 그리고 이들의 성격을 確認할 수 있는 資料가 수집되어 이 대지상에 형성된 無文土器文化를 밝혀줄 수 있는 성과는 얻었다.

앞으로 이 地域은 강쪽에 가까운 地域에서 농경의 피해를 받지 않은 유적을 찾아 보다 精密한 發掘이 必要하며 이 地域이 南한강 流域에서 우리나라 先史文化의 중요한 시대를 整理해 줄 수 있는 無文土器의 部落이 형성된 것을 밝혀 줄 수 있는 대유적지임을 알 수 있어서 앞으로 보다 대규모의 광범위한 조사가 水沒되기 이전에 進行되어야 한다는 確信을 얻었다. 이 地域의 조사는 일단 이 遺蹟의 基本性格을 確認할

수 있는 重要한 資料의 수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평가된다. 三개의 住居址의 發掘로서 無文土器 住居址 遺蹟의 調査는 일차적으로 끝낼 수 있다. ②〇. <도七>

여기에서도 역시 중요한 무문토기文化의 대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광의리 A지구의 무문토기 주거지에 관해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광의리 地區에서 支石墓의 발굴을 시작하였을 때 이 支石墓가 무문토기 住居址를 파괴하면서 그 위에 세워진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 주거지의 形態를 밝히기 위한 확장작업 끝에 이 주거지의 한면의 길이는 4m 20cm 되는 方形의 주거지임을 확인하였다.

지석묘와의 關係에서 調査된 地層構造는 이 住居址가 支石墓를 세웠을 당시 表土하에서 약 10cm 정도에서 존재했던 것이 확인되었을 때 支石墓는 남쪽과 서쪽 section에 걸쳐 그 원상태를 조금 알 수 있게 하는 이 住居址의 나머지 部分을 완전히 파괴하였기 때문에 그 주거지 원형의 확인은 불가능 하였다. 다만 이 住居址의 調査에서 石器의 出土는 없었으나 살아남은 東西길이 4m 20cm, 南北길이 1m 20cm 정도의 유적에서는 무문토기의 저부, 구연부, 그리고 상당한 량의 복부 파편이 수거되어 이것이 초기 무문토기 住居址임을 확인하였다. 발견된 無文土器의 구연부는 공열식이 아닌 직립구연임을 알 수 있고 아주 연결이 었다.

이 일대에 다른 住居址가 있을 것은 확실하나 이들 住居址가 現地 地表 下 20cm에서 30cm 內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地層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 확실하며 보다 완전한 住居址 遺蹟을 찾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접지역인 흥적대지에서의 發見 가능성은 크며 광의리의 발굴에서 발견된 주거지는 파괴 주거지의 殘餘分 調査의 성격을 면치 못하는 결과 밖에 얻을 수 없었다. ②①.

이 住居址는 發掘報告書에서 알 수 있듯이 無文土器 초기의 유적이며 이와 關係된 무문토기 住居址가 이 일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황석리 B地區에서도 광대한 지역에 걸친 無文土器 大취락의 發見이 報告되어 있는데, 그 報告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무문토기層은 덧띠무늬·굵은줄과 가는줄무늬土器들이 복합적으로 출토되어 좀 더 분명한 조사에서 層位로 구분되는지, 같은 層에서 發達되는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新石器의 傳播過程을 밝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근 遺蹟出土의 遺物들과 비교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만든 유구를 찾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文化形態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문토기層은 백제계통 무덤의 유구들을 정리한 뒤에 다시 전체적으로 진행된 발굴에서 文化性格이 보다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78)

이 報告書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地域에도 無文土器의 大취락이 形成되어 있으나 충분한 發掘調査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앞으로의 조사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진목리 A-B地區 遺蹟에서도 수 많은 無文土器片이 발견되었으나 住居址 등에 대한 調査 발굴은 시도되지 않았다. 다만 이곳에서 발견된 무문토기片에 대한 검토에 의해서 비교적 後期無文土器 취락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밝혀 볼 수가 있었다.」(79)

결국 이들 발굴조사地域의 유구와 遺物의 검토 말을 기초로 하여도 韓半島內에서 現在까지 발견된 大無文土器취락의 集中지역이 이 中原地區 文化圈內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江岸 遺蹟에서만 이 정도의 先史遺蹟의 存在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인접지역에서는 보다 폭넓은 분포를 가진 무문토기 大遺蹟의 存在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今年에 실시된 一九八三년도 調査에서도 忠원군 동량면 지동리의 江岸층적대지상에서 二개의 住居址가 더 發見되었으나 아직 正式 보고서는 發表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청댐 수몰지구內에서도 無文土

器遺蹟의 存在가 보고되고 있으나 그 정확한 內容은 確認할 길이 없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서 孔列式 無文土器에서 부터 여러가지 변형의 無文土器가 이 文化地區內에서 發見된다는 사실과 이러한 土器片과 住居址 유구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無文土器文化의 변천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遺蹟인 것은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調査結果에서도 쉽게 유도해 낼 수가 있었다.

中原文化地區 調査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調査對象의 하나가 지석묘 調査였다. 지석묘는 한반도 全域에 걸쳐서 발견되고 있으나 韓半島 中部地域에 支石墓의 性格을 설정해 주는 遺蹟이 제원군 청풍면 황석리 支石墓群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일로서(80) 이 외에도 수 많은 지석묘群이 충주를 中心으로 한 이 地域일대에 산재하고 있는 것이다. 中原文化地區內에서 발견된 支石墓 分布地域은 제원군 청풍면 계산리 B·C유적, 제원군 청풍면 광의리유적, 제원군 청풍면 황석리유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안터유적, 제원군 청풍면 양평리유적, 충원군 가금면 탐평리유적인데, 이 중에서 조사 발굴된 支石墓遺蹟은 제원군 청풍면 계산리 B·C유적, 제원군 청풍면 광의리유적, 제원군 청풍면 황석리유적, 제원군 청풍면 방흥리유적 등이 있다.

이외에 대청댐 수몰地區內의 옥천 안터遺蹟 등이 조사 발굴되어 보고되고 있다.」(81)

지금까지 조사된 內容을 살펴보면 이미 一九六二년에 黃石里 支石墓 一八基가 發掘되었고 이들은 기반석 지석묘와 무지석식 지석묘가 混合된 狀態로 發掘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보통 南方式支石墓로 알려져 있는 형식인 것이다. 그리고 一九八二년의 조사도 역시 이곳에 남아 있는 지석묘에 대해 실시되었는데 이때에 조사된 것은 무지석식 支石墓 二基다.

이 지역과 江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이는 廣儀里에서도 一九八二년에 破壞된 소위 北方式이라 불리는 卓子式 支石墓가 발굴되어서 황석리

에서 이미 조사된 지석묘중 기반식으로 알려진 것이 보통 北方式이라고 불리우는 변형 卓子式 支石墓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역시 廣儀里와 연결된 계산리에서 발굴된 二基의 지석묘는 토광 위에 上石만을 덮은 典型的 무지석식 支石墓로서 後期 形態에 속하는 遺蹟이었다. 특히 이들은 타원형에 가까운 無文土器住居址 유구를 破壞하면서 설치되었던 것은 주목할 必要가 있다.

이외에 조사된 다른 遺蹟의 支石墓들은 모두가 무지석식 支石墓들로 알려져 있으며 一九八三년에 발굴된 支石墓중 석상식 하부구조를 갖춘 특수한 양식의 것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그 상세한 내용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조사보고된 支石墓 유적에 관한 조사내용에서 제천군 청풍면 황석리 B지구 지석묘군에 관해서는 발굴조사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사의 방법으로는 먼저 덮개돌이 남아 있는 곳에서 부터 하여 동리 주민들의 제보를 참고로 하였고, 땅속에 있는 것도 도구로 확인하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한 결과 도판에서와 같이 모두 四一基의 고인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갯수는 一九六二년도의 국립박물관에서 한 발굴된 고인돌수 一八기도 포함되고, 당시에 도 알려진 것도 있겠으나 이번에 새로 찾은 것도 상당수가 있다.

동리 주민들 특히 유필렬씨의 四、五일만에 걸친 어려운 작업을 통하여서 고인들의 분포를 그 나름대로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자료를 얻게 되었다.

1) 국립박물관에서 한 조사의 갯수 보다는 훨씬 고인들의 수가 많아서, 이 지역을 한강유역과 내륙지방의 고인돌 중심지로 보아야 하겠다.

2) 강을 중심으로 하여 줄을 지어서 있음이 다시 확인되었으나, 이것은 一줄로 있기 보다는 二줄을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③

3) 여기에 있는 고인돌과 선돌은 같은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층위상의 발굴결과로 밝혀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 위에서 2기의 고인돌을 발굴하였다.

i) 층 一 (황석리 三六〇번지, 유인출씨 밭)
활석의 덮개돌(三一〇×一六五×二〇cm)로 덮여 있는 완전한 고인돌이었다.

지금은 현재의 발밑에 있어서 경작기로 도랑을 만들 때에 찾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 활석은 여기에서 약 三〇〇m 떨어진 산에서 갖고 온 것이 확실한데, 이 덮개돌을 벗기어 보니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남방식 고인돌로 길쭉한 유구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 유구는 강물의 흐름과 일치하고 있어서, 다른 고인돌과 같음을 알게 되어 여기 고인들의 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었다. ④

이러한 조사내용은 이 지역에서 이미 一九六二년에 국립박물관에서 조사한 당시의 지석묘보다 훨씬 많은 지석묘가 분포되어 조사된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이 황석리유적에서 발견된 여러 형태의 지석묘의 성격으로 보아 또 그 수량으로 보아서도 한반도 중부지역 지석묘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조사가 끝나지 않은 지석묘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집중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다.

방흥리지구 지석묘 유적의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이 유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방흥리 고인돌은 경사를 이룬 지형에 위치한 관계로 위에서 흘러내린 퇴적물이 덮개돌을 덮어 한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으나 경작에 의하여 땅이 파여지고 홍수로 지형이 깎여 내려감에 따라 땅위에 드러난 듯하다.

이는 발굴을 통한 층위 구별에서 퇴적물의 四〇cm가 덮개돌 위에 쌓여 있었음으로도 알 수 있다.

퇴적물이 제거되고 덮개돌(二六五×二六〇×二五cm)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덮개돌은 원래의 위치에서 아래쪽(남동방향)으로 약 六〇cm 움직여져 있었다. 그래서 위쪽으로 유구의 일부부분이 덮개돌의 밖에 드러나 있었으나 파괴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유구의 모습은 원토층에 크고 작은 강돌 四九개를 편편하게 깔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려놓은 것으로, 남방식 고인돌(三三〇×一五六×cm)이다.

유구의 방향은 강돌의 흐름방향(SW五〇)과 일치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고인돌 발굴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과 같이 많지 않았다.

이는 덮개돌이 움직여져 유구가 밖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물의 일부부분이 강돌에 썩겨 나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인돌이 놓인 곳은 급경사를 이룬 발의 위쪽에 있고 유구가 드러나 있어 그럴 가능성이 크며, 답사시 주위에서 많은 수의 무문토기 조각을 찾았음이 발굴과정에서의 이런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유물은 붉은색 간토기조각 一점, 무문토기조각 二점, 간돌칼조각 一점, 갈돌조각 一점 뿐이다.

학계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는 황석리 고인돌 유적과 고인돌이 폐를 이루고 있는 진부리 고인돌유적과의 중간지점에 있는 방홍리 고인돌 유적은 남한강 중류의 조그마한 충적토위에 있는 남방식 고인돌이다.

방홍리유적은 이미 조사, 발굴된 황석리유적과는 달리 외형상으로 커다란 편마암의 덮개돌이 유구를 덮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이 유적의 성격을 말할 수 있다.

一, 방홍리 유적은 고인돌 폐가 분포하고 있는 황석리와 진부리 지역의 중간지점에 있어 당시의 사회 모습을 복원하는데 한 자료가 되고 있다.

二, 형식은 이 일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남방식 고인돌이다.

三, 이 유적의 표준유물은 붉은색 간토기를 들 수 있다⁵⁵⁾.

이 유적에서 단도 마연토기 조각 등이 발견되어 지석묘의 성격과 시대

를 밝혀 줄 수 있는 좋은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眞木里에 존재한 조사되었던 지석묘 유적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眞木里 고인돌 八基를發掘한 결과 고인돌 七基는 山の 능선을 따라 거의 一열로 배치되어 있었고, 蓋石의 長軸은 山の 傾斜方向 그리고 南漢江의 흐름과 같은 方向이다. 새터 고인돌은 東西인데 이것 역시 江의 흐름과 같다.』

대다수 고인돌의 長軸方向이 주변에 흐르는 江의 方向과 一致한다는 것은 注目할 만한 사실이다. 이것은 先史時代人 특히 農耕을 主로한 고인돌 社會에서 물이 人間生活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시사한다.

型式面에 있어서 支石을 가진 것은 一號와 四號 뿐이고 나머지는 蓋石이 地上에 놓인 蓋石式이다. 비랑 아래로 떨어진 破壞 고인돌은 원래 二重蓋石을 가진 型式으로 생각된다.

一號 주위로부터 五號까지 깔려있는 敷石은 4'를 중심으로 level上 二五cm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一號, 二號, 四號가 먼저 그리고 五號는 나중에 築造 사실을 알려준다. 한편 三號는 이 敷石과는 연결이 되지 않고, 石質도 틀리며 四號 西側의 敷石보다 낮은 위치에 地下遺構가 만들어진 점으로 미루어 四號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敷石은 四基의 고인돌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한部族의 成員이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문헌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라 생각된다. 大邱 大鳳洞 第四區 第一支石墓와 성격은 다르나 이것이 家族墓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4'는 遺蹟의 中央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중심으로 敷石의 높이가 차이가 생기고 또 西側 주위로 돌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분명히 고인돌을 築造하던 당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갖다 놓은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다른 예가 나오기를 미루어 그 해석을 내리고자 한다.

六號, 七號는 蓋石주위의 下部에서 埋葬施設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腐蝕岩盤위에 놓인 것으로 보아 고인들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六號는 蓋石으로 생각될 만큼 形態가 비슷하고 石質도 같으며, 또 주위에서 이런 돌을 發見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인돌을 만들던 사람들이 다음을 위해 豫備로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새터 고인돌은 蓋石下에서도 粘土性의 흙만이 나타나 이것은 地下에 土壙를 마련하고 그 위에 蓋石을 올린 型式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南西側의 板石의 意味는 알 수가 없다.

一 개월에 걸친 발굴조사 중 時代를 추정할 만한 遺物이나 地表에서 채집한 金海式土器片과 三國時代 土器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유적이 과거에 耕作地로 오랫동안 사용되는 동안 遺構가 많이 破壞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A·B·C 그리고 三號 下部의 石槨 등 四個의 石槨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었고 그들의 長軸方向이 거의 물의 方向과 平行하다는 것을 確認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⁸⁶⁾.

이상의 보고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목리 지석묘에서는 그러면 특정의 유물 발견은 없었으나 매장 방식에 의해서 지석묘의 장축방향의 강의 흐름에 평행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진목리 지석묘유적의 현상이 한반도 지석묘 전체에 해당되는 매장방법인가 하는 것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지극히 중요한 지석묘 축조 관계의 자료가 이 진목리 지석묘 발굴에서 밝혀졌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일단 이 지역에서도 상당한 수의 지석묘가 있었고 이것이 중원지구 문화의 중요한 한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계산리 B·C 지구에서 발굴된 지석묘의 성격을 발굴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도 八)

『이 三號 支石墓는 地表에 약간 上石이 보이는 狀態로써 發掘되기 시작하였는데 現存하는 상석의 장축을 따라 기준선을 띄우고 四개의 Section으로 나누어 發掘한 결과 表土下 二五cm에서 三〇되는 第三地層에서 그 토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토광의 모습은 비교적 알

아보기 쉬운 색깔이었으나 토광 주위의 토양은 유기물질이 상당히 섞인 담갈색 토양들이어서 토광내의 토양과는 쉽게 구분이 되지 않았으나 그 조성이 아주 달라 토광의 모습은 알기 쉬웠다. 이 토광은 發掘結果 現存하는 上石의 장축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밝혀졌는데 東西로 더 기울어졌으나 東西와 南北 方向의 中央에 가까운 方向으로 만들어 있었으며 이것은 강의 흐름과 平行되는 方向이었다.

토광의 장축은 一m 七五cm였고 비교적 中央部分의 폭이 八〇cm 인 넓은 장방형의 토광으로 그 깊이는 現地表 下 약 七六cm 아래에서 바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토광의 바닥은 支石墓 蓋石의 밑부분에서 는 약 四二cm 되는 곳에서 바닥이 나타난 것이 된다. 支石墓의 蓋石이 내려앉은 것을 감안해도 이 토광은 그리 깊은 것이 아니었다. 大略 五〇cm에서 六〇의 깊이로 토광을 파고 매장을 끝낸 후 上石을 얹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얇게 토광을 형성한 것은 이 漢江流域의 後期 支石墓에서는 흔히 發見되는 예에 속하고 있는 것임으로 이 支石墓의 發掘結果 上石과 토광만이 있는 現實외에도 토광의 길이와 형태를 찾아내는 發掘結果로 보아서도 이 支石墓의 특징은 이미 알려진 한강변 지석묘와 연계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二號 支石墓의 유구는 길이 二、一m, 폭 一m의 긴 타원형의 土壙을 파고 遺骸와 부장품을 넣은 후 흙으로 채우고 割石과 세석을 얹혀다가 덮은 뒤 土石을 위에 얹어놓은 것으로 漢江流域 초기 支石墓의 典型的形式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⁸⁷⁾.

역시 계산리 B·C 지구에서 발굴된 二기의 지석묘도 가장 후기의 무지석식 지석묘임이 확인되어 지석묘의 편년상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이 지석묘가 무문토기 주거지를 파괴하면서 설치되었던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편년상의 위치와 무문토기문화와 연관시켜서 그 편년상의 재료를 얻게 해 주고 있다.

광의리 A 지구에서 발견된 지석묘에 대해서는 발굴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밝히고 있다.

『광의리에서 발견된 이 支石墓는 上石이 없어진 상태의 北方式 支石墓였다.

상석만은 없어졌으나 지석은 잘 보존되어 있어서 支石墓의 구조는 잘 알 수 있어서 강 건너의 黃石里 北方式 지석묘와의 연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었다.

발굴결과 이 지석묘는 巨大한 石灰岩 二개를 가져다가 남북장축으로 하나씩 놓아 直단면이 되어있는 평탄한 벽면을 형성할 수 있는 쪽을 內部面이 되게 놓아 두개의 암괴가 內部에서 서로 마주보는 두개의 벽면을 형성하게 하고 남은 동서 側面은 판석 두장으로 가려 方形의 내부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위에다 큰 上石을 얹은 형태의 지석묘였다.

남쪽벽면을 만들기 위해 옮겨놓은 石灰岩괴가 가장 큰돌로써 내부 벽면을 형성한 쪽은 그리 길지않고 길이 一、七五m의 면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 바위의 체크기는 제일 긴쪽이 一、六m, 수직면길이는 〇、七五m 두께는 〇、五五m의 큰바위였고 이 바위의 내면과 마주보게 벽면을 형성한 北쪽 끝에 세운 石炭岩괴는 내부벽면의 길이는 一、六m였으나 이 바위의 제일 긴쪽은 一、五m이며 수직면 길이는 〇、五四m 그리고 두께는 〇、三五cm의 큰 것이었다.

두개의 이 큰 바위가 외부에서는 不定形인 단순한 두개의 바위덩어리로 보이나 그 내부 벽면은 하나의 방형공간을 만들기 위한 수직이 평평한 벽면이 되게 세워지고 이 두개가 기본 支石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남쪽벽면을 이룬 支石은 下部의 구조가 곧바로 서있기에 약간의 불안한 형태였던 까닭에 그 남쪽 바위 밑에 길이 三〇~四〇m 되는 三개의 강돌을 갖다가 받침돌로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게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두개의 支石이 만든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 東쪽과 西쪽에 각각 큰 판석을 세워서 하나의 구형체 공간을 완성했는데 동쪽 벽면을 형성한 板石은 일부를 최근에 깨서 사용하였던 판체로 그 전체 크기를 밝힐 수는 없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板石크기로써 原形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현재 이 판석은 길이 〇、七m만 남아 있는데 두께는 〇、二五m 되고 벽면을 이루는 直단면의 길이는 〇、七五m가 되어서 이 역시 상당히 큰 판석을 갖다가 동쪽 벽면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쪽 벽면을 三〇cm × 二五cm 에다가 직단면 길이 六〇cm의 비교적 작은 板石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 板石은 현재의 위치처럼 지석묘면에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니라 지석묘 西쪽 지면에 누워있던 것을 세웠다 는 발주인의 말을 참고해 볼때 전에 이미 옮겨져서 파괴되었다가 남은 부분의 일부만이 板石을 다시 이 支石墓에 기대어 놓은 것이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西쪽面의 板石의 크기나 그 제위치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지석묘는 내부에 길이 一、五m × 一、七五m의 四角의 공간을 이루게끔 만들고 그 위에 상석을 얹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상석의 크기는 발주인의 말에 따르면 길이 약 五m ~ 六m 에 이르는 巨大한 板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上石의 크기가 크고 남작하였기 때문에 六〇년전에 日人들의 정원 용이나 기타 목적으로 들어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석묘내에 채워진 흙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처음은 진흙을 쓰기 위해 지석묘 옆에 관 구덩이에서 나온 흙을 발주인이 이 속에 흙등을 다시 얹어 놓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처음 채웠던 황갈색 사질점토 내에서 발견된 돌토끼 一점은 진흙구덩이를 팔때 혼입된 무문토기 주거지의 석기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진흙구덩이만 아니라 이 지석묘 역시 전에 있던 주거지를 파괴하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유적에서는 지석묘와 연관된 유물의 발견은 없었고 그 구조로 보아 네벽면을 형성하고 있었던 北方式 지석묘임이 확인되었다』⁸⁸⁾. 특히 이 지석묘는 북방식 지석묘였음이 밝혀지고 있어 이 지역 내에

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형식임을 보여 주어, 중원지구 내에서도 북방식 지석묘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주고 있다.

또 이 지석묘는 방형 무문토기 주거지를 파괴하면서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편년상의 위치도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는 유구다.

이 이외에 발굴보고된 지석묘로써는 남한강유역을 벗어난 지역에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청법 수몰지구 A에 보고된 옥천안터 지석묘 유적이다.

이 지석묘의 성격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발굴자는 조사된 3개의 지석묘가 각각 형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이 중 3호 지석묘가 묘표식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서 아마 무지석식 지석묘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⁸⁹⁾.

여하튼 대청법 수몰지구내에서도 상당한 수의 지석묘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중원 선사문화 지역내의 지석묘의 분포가 광범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지금까지 중원문화지구내의 조사된 지석묘에 관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결과 이 지역내에는 상당한 수에 달하는 지석묘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존재한다는 사실과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여러 형식의 지석묘를 고루 찾아볼 수 있으며 또 무문토기 주거지와 연관되는 여전 밑에서 이들이 축조된 사실을 알 수 있게하여 편년상의 문제와 무문토기문화의 성격설정에도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지역全體에 걸쳐 산재하고 있고 수많은 支石墓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結論的인 結果를 유출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中原 先史文化地區 內에 있는 지석묘의 정밀한 조사결과와는 앞으로 아직도 충분히 說明되지 않고 있는 韓半島 中部地域 이남의 支石墓의 性格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초기철기시대의 遺蹟으로는 중원군 동량면 지동리에서 이번에 四基의

古墳이 發見된 것을 들 수가 있다. 이 古墳들은 아직 정식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밑바닥에 진흙을 깔고 관을 設置한 후 흙을 덮고 그 위에 河川石을 깔아 놓은 形態로서 그 내부에서 철제 화살촉, 小刀子, 관뿔 등과 함께 부서진 土器 등이 發見되었다. 그 결과 이 고분들이 초기철기시대 후기의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발굴결과 외에도 아직 이렇다할 초기철기문화의 조사결과와는 없으나 中原地區 文化全地域에서 적는 많은 이 계통의 土器片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며 發見된 것은 그대로 보아 넘길 수 만은 없고 앞으로의 조사연구를 기대해 보게하고 있다.

四、중원지구 歷史文化的 考古學的 高찰

三國時代의 遺蹟 중 古墳들은 이 中原地區文化的의 가장 두드러진 유적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 地域의 三國古墳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유형이 발견되며 특히 아직도 발굴보고가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발견이 이루어져서 그 중요성은 자못 큰 것이 밝혀지고 있다. (표3) 중원지구문화유적 중 이들 고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學界에서 관심을 보여왔고 특이할 만한 古墳의 存在는 전에도 소개된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내의 古墳群에 대한 자세한 집중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그 동안 많은 수의 고분군들이 도굴의 대상이 되어 파손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예를 들자면 상당히 많은 지역을 들 수 있으나 우선 지금까지 正式으로 소개된 古墳이나 古墳群의 存在와 그 分布 位置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조사 발굴된 古墳群들에는 중원군 무능동 A지구, 제원군 양평리 A지구, 제원군 계산리 A지구, 연곡리지구, 사기리 B지구의 고분과 청주 신봉동고분群 등이 있다.

충주법 수몰지구 내의 조사에서 발견조사된 고분에서 특기할 것은 江

표 3, 고분군

지역	유적명	발행	誌
청원군	상장리 고분-석실분	문화유적총람	
"	미천리 고분-석실분	"	
옥천군	석탄리 고분	"	
	산계리 고분	"	
괴산군	추산리 고분	"	
	대사리 고분	"	
음성군	도청리 고분-고려분	중원문화권유적분포도색인	
	능산리 고분	문화유적총람	
단양군	현곡리 고분-고려분	"	
	하당리 고분	"	
	가대리 고분	중원문화권유적분포도색인	
충원군	무릉동 A지구-조선분	"	
	가금면 A-고려분	八二,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약보고서	
	미륵리 고분	중원문화권유적분포도색인	
	누암리 고분	"	
	탑평리 고분	"	
제원군	양평리 A지구	八二, 충주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약보고서	
	로타리	삼국분	
	계산리-원형적석분-삼국분	중원문화권유적분포도색인	
	면곡리	一, 분-삼국분	
	사거리	二, 분-통일신라분	
		B-조선분	

岸臺地上에 설치되어 있으며 河川石을 使用해서 만든 積石古墳이다. 양 평리 A 지구에서 發見된 서울대학교 박물관 조사고분은 方形積石古墳이었고 10V 계산리 A 지구에서 경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

된 三基의 積石墳은 원형積石墳이었으나 11V 그 구조에 있어서는 고구려에 고분의 전통을 강하게 보여주는 변형 고구려계 고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뒤에 이 수몰지역 내의 고분에서 統一新羅時代의 骨壺를 안치한 고분 등이 발견되어 이 지역 내의 세력의 교체상태를 알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수몰지구 내의 고분조사 결과와 견줄 수 있는 중요한 조사는 淸州 신봉동에서 一九八二년에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된 백제고분군의 조사 내용이다. 이곳에서는 巨大한 백제적석실분 一基와 수많은 백제토광분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들 고분들에서 아직껏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백제토기가出土되어서 土器의 形式과 時代區分 및 變遷의 重要한 資料가 채집되었다. 12V

특히 이들 고분이 무기와 마구를 고루 갖춘 토광분들로서 거의 대부분이 성년 남자의 고분인 것은 이들이 米湖川을 경계로하고 고구려와 대적한 백제전사들의 고분일 것이라는 의견이 발굴을 담당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은 주목할만하다.

충원군 무릉동 A 지구에서 발견된 고분은 당초 삼국시대 고분으로 추정하였으나 발굴결과 조선시대 민포임이 밝혀져 이 고찰에서는 일단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삼국고분으로 조사된것중의 하나인 제원군 양평리 A 지구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고분의 입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선 강변의 충적대지에 위치하였다는 점, 더구나 二호분의 경우에는 바깥 강에 다가서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적석총과 흡사한 性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二호분의 경우에 강변을 향해 경사면을 따라 높게 적석한 것도 고구려계의 강변 적석총에서 소규모의 積石으로 고분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석고분이 성행했던 것은 古新羅의 적석목과분의 경우와 고구려의 적석총이 있는데 이 충주지역이 삼국시대의 고구려·신라

의 각축장이 되었던 점은 고분의 성격을 해결하는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분의 연대와 성격은 구체적으로 추정짓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발굴이 어느 정도 진행된 一호분의 경우에 고려고분에 의해서 유구가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굴의 진행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 고려고분과 이 고분과의 관계도 앞으로의 발굴에서 보다 명확해지리라 생각되는데 이 고려시대의 이장은 고분의 거대한 형태와는 달리 主墳으로서 遺構의 흔적이 전혀 없고 출토양상으로 볼 때 적석의 표면에 埋葬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호 어떤 관계도 보이지 않음에 고려시대 民墓로 여겨진다. 더구나 一호분에 언급된 埋葬흔적 이외에도 인골편, 치편 등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民墓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유력자는 이곳에 산할석을 가져와 埋葬시설을 보완한 것이 아닐까 한다. F二, F三등의 하부 적석사이에 하나의 평면을 이루면서 出土되는 三國토기편들은 고려시대 이전부터 이곳에 이장 유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는데, 앞서 언급한 바대로 앞으로 발굴에서 보다 명확해 지리라 생각된다⁹⁰⁾.

이 고분은 발굴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삼국시대 고분 위에 고려분이 다시 설치된 상태로 있는 것이었으며 출토유물도 많이 나오고 있어 역사시대의 이 지역 지배세력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발굴이었다. 이 유적에 대한 발굴은 一九八二년에 시작되어 一九八三年까지 걸쳐 조사된 유구로서 아직 최종발굴보고서에서는 출판되지 않았으나 고구려계 방형적석기단위에 세워진 고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삼국고분으로서는 제원군 계산리 A지구의 고분이 정식발굴 조사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세개의 적석고분이 조사발굴되었는데 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고분에서는 그 고분의 상부구조와 묘곽내지 유물의 발견은 없었고 이미 완전히 도굴된 고분으로 봉토의 토양 역시 헐어서 다른 민묘들

을 추조할 때 쓰고 또 밭에다가도 채워서 사용한 상태여서 그 원래의 고분의 높이 등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도 고분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던 적석부분에 도달하여서는 더 이상 흙을 파내지 못해서 남겨두어 묘곽이나 유물은 완전 파괴 소멸되었으나 그 축조 구조는 손쉽게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어서 일단 고분의 구조는 밝힐 수가 있었다.

이곳에 조성된 고분은 같은 계통의 고분이지만 그 축조연대를 달리 하였던 것은 환석을 중심으로 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최초로 세워진 一號고분은 곧 그 후에 세워진 二號고분에 의해 환석과 적석의 상당부분이 파괴당하였고 그 후에 다시 二호고분과 연결하여 三號고분이 또 다시 一號고분의 환석과 적석을 침식하면서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一호고분은 그 환석의 일부가 이미 노출되어 있어서 그 중심부위를 짐작할 수 있는 고분이었다.

이 고분의 환석들은 길이 三〇cm ~ 五〇cm 되는 비교적 큰 河川石을 갖고 쌓아 만든 것으로 큰 하천석을 나란히 때로는 두출씩 얹혀서 큰 원형으로 돌리고 그 사이사이에 주먹크기의 자갈돌을 갖고 다져서 움푹이 지 않게 한 河川石에 의해 축조된 하부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

이 환석은全體고분의 약 반정도를 원형대로 보여주어 이 고분의 크기가 직경 九m 三〇cm의 大形환석을 호석으로 둘러놓은 고분임을 알게 하였으며 이곳에서는 제일 큰 고분이었고 동시에 가장 먼저 축조된 고분이었다.

이 고분도 환석내부는 하천석으로 적석을 하여 비교적 평편한 기반을 만들고 그 중앙부위에 묘곽을 설정한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발굴시에는 이미 환석 내부의 적석층을 형성했던 河川石의 대부분이 파괴 이동되어 원위치에 남아있는 적석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중앙부위의 묘곽설치장소의 확인과 이 고분의 적석 下의 지층조사를 할 것과 제일 밑에 하천에 의해 형성된 것을 보여주는 자갈모래층이 二m 가량 쌓인 위에 후갈색의 부토층이 약 一〇cm의 두께로 있었고, 이

위에 환석과 적석을 쌓아 환석의 경우는 두겹내지 세겹의 하천석을 올려 쌓아 석층의 두께가 五〇cm 내외가 되게 하고 그 환석의 中央部の 적석은 큰하천석을 한결 쌓아 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적석의 위에는 다 그 후갈색점토를 깔아 다지고 있었다.

결국 中央부위의 이러한 후갈색점토 위에 직접 묘곽을 설치하고 봉토를 씌운 구조의 고분임을 알 수 있었으나 도굴과 파괴에 의해 三國토기편을 三八여점 채집한 것이고 점토층내에서 무문토기편 六六점이 채집되고 완전히 산화되어 그 형태나 기능을 알 수 없는 작은 철기의 흔적 두개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결국 一號고분은 河川石을 이용해서 원형의 기반을 형성하고 그 위에 점토를 다져 놓은 후 묘곽을 설치한 대규모의 고분으로 남한강의 이 지역의 대표적인 三國고분의 하나였음을 밝힐 수가 있었다.

二號고분은 一號고분 보다는 그 규모가 훨씬 작은 고분이다. 이 고분 역시 원형의 환석을 설치하고 그 중앙부에는 다른 하천석을 깔아 다진 형태를 하고 있으나 一號고분이 하천석만을 사용한데 비해서 이 고분은 山石을 상당량 사용하여 川石 등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였는데 이런 山石을 사용한 것이 주의를 끈다.

二號고분의 축조는 一號고분이 축조된 것보다는 훨씬 후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二號고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一號고분의 환석은 네개가량을 파괴하고 그리고 내부의 적석까지도 침식하면서 직경 六m의 원형 환석을 등글게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二號고분도 川石을 大量사용하였지만 이 川石들은 길이 三〇cm 전후의 비교적 一號고분이 사용한 川石보다는 작은 것이었다. 그리고 환석을 두를 때에도 거의 川石 서너개를 설치하고는 큰 山石을 하나씩 끼워 놓아 전체의 둥근 석환이 밀리지 않게 하였고 中央의 적석에도 상당량의 山石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이 二號고분의 환석 내부 전역은 이러한 川石과 山石에 의해 한결 씌워져 있는데 그 상태는 크게 교란되지 않아 原形을 유지하고 있어서 비

교적 정확하게 이 고분의 하부구조 적석방법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고분 환석의 中央부분은 南北길이 二m, 동서길이 三m의 세로인 하나의 구획이 선정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四角形의 구획은 그 네변에 돌아가면서 山石을 사용하여 특수구획을 정한 것으로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한변의 길이가 三m x 二m의 구획지역 内の 川石으로 채워져 다져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구역을 고분의 적석층에 설치한 것은 이러한 구역이 묘곽을 쓰는 구역이었음을 알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묘곽이 설치된 곳에 특수지역을 설정하여 그 주위를 산돌 등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川石등이 흘러내리지 않게 방지하는 장치로 한 것은 북한강의 文湖里 방향적석고분의 묘곽의 설치방법과 같은 계통임을 알 수 있다. 川石만으로 다치지 않고 묘곽의 지역에 山石을 쓴 구획을 설정한 것은 三號고분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고분 역시 직경 六m의 둥근 지역을 川石과 山石을 큰 것은 하나, 작은 것은 두개 내지 세개를 포개서 圓을 형성하고 이 원의 내부는 山石이나 川石을 한결 깔고 손주먹 크기의 川石을 진흙과 함께 섞어 이러한 적석 사이에 다져 넣어서 비교적 단단한 下部구조를 형성하였다.

川石의 적석을 진흙과 작은 자갈로써 다져 평단한 저부를 형성한 고분축조 방법은 북한강의 文湖里의 고구려系 방향적석 고분의 축조방식에서도 발견되는 방법으로 일단 하천석을 사용하여 적석을 형성하는 고분축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일단 이것은 신라고분의 축조나 백제고분의 축조방법에서는 볼 수 없는 고구려고분의 축조방식인데, 다만 이곳의 적석고분이 원형적석인 점에서 간단히 고구려 고분의 한 계열이라고 단정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제단식 축조가 아니고 方形이 아니라고 하여도 川石을 가는 방법과 묘곽을 地下에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형성된 적석위에 설치하였던 점은 상당히 고구려적 기법이 잔존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고분에서 발견되는 토기중에서 고구려계 회백색 토기편이

나온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고분의 中央部에서 묘곽의 흔적을 찾기 위한 Trench 선정작업에서도 一號고분과 거의 같은 지층구조가 발견되어 결국 이 二號고분 역시 一호 고분처럼 적석 위에 묘곽을 설치한 것이 확실하지만 너무도 철저한 도굴과 봉토의 파괴로 그 묘곽의 규모나 형태는 찾을 수 없었고 이미 파괴된 흔적만 있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三號고분도 一號나 二號고분과 똑같은 형식의 고분으로써 이 세 고분 중 제일 나중에 축조된 고분이었다.

그러나 二號고분의 축조보다 그리 오래지 않은 시기에 축조된 것은 환석의 축조에서 二號고분 환석을 파괴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축조하여 그 환석의 원이 약간 일그러져 그대로 二號고분 환석을 다치지 않고 축조했던 사실과 사용한 川石이나 山石의 크기와 석질들이 비슷한 점으로 미루어보아서 二號고분과 거의 같은때나 약간 후기에 축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三號고분도 직경 六、六m의 원을 이루는 환석을 축조하고 나서 그 中央内部 全城에 川石과 山石을 한결같아 기단을 형성하였는데 고분의 환석의 직경이 六、六m인 것은 二號고분의 환석의 직경이 六m인 것과 비교하여 거의 같은 크기의 고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三號고분의 환석 역시 길이 三〇cm 내외의 河川石과 거의 같은 크기거나 약간 더 큰 山石을 섞어가면서 큰것은 하나 작은 것은二个 내지 三个의 돌을 포개서 전체고분의 돌레를 돌아가는 환석축조를 하였고 그 내부에 川石과 山石을 깔았고 그 사이 사이를 작은 자갈돌과 진흙으로 다진 축조방법은 一號、二號와 같았다. 이 고분은 민묘가 있던 곳과 가까웠던 탓인지 중앙에 깔아둔 적석과 西쪽 환석 약 三m 정도가 파괴되어 있었고 원형을 제대로 갖춘 것 같으나 제 二號고분처럼 완전하지 않다.

이 고분의 중앙부분 묘곽이 있을 곳은 묘각의 크기만큼 四角形의 지역을 山石으로 둘러싼 곳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묘곽을

설치한 곳은 산석을 갖다가 川石과 섞어 일정한 사각형의 한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부를 다시 川石으로만 한결 쇠운 것으로 알 수가 있다. 다만 이를 수 있는 구역의 정확한 크기는 이곳이 파괴되어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三號고분의 묘곽위치는 도굴 당시 완전히 들어내서 돌이 거의 없는 빈 부분이 노출되고 다만 西쪽 끝의 묘곽의 경계를 암시해 주는 山石의 일부가 남아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묘곽구역을 산물 등으로 새로이 설정하는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문호리 방형적석 고분에서도 발견된 축조형태였다.

그러므로 이 三號고분 역시 환석을 두르고 中央의 四角形의 묘곽지구를 山石으로 구획하고 그리고 全體에다가 川石을 덮어 진흙과 다져서 고분의 기반을 축조했던 고분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고분에서도 三國時代 토기편과 신라토기편 그리고 조선도자기와 질그릇 편들만이 수습되었을 뿐 다른 아무런 유물의 출토도 없었다.

『그러나 이 고분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일단 이 고분과 관련이 없는 토기편을 가려냈다. 그 결과 무문토기편은 지층조사에서 이미 고분과 연관이 없는 토기편이고 이 고분 축조시 혼입된 것이며 적석을 다지기 위한 진흙 속에서 발견된 토기편은 거의 무문토기편과 삼국토기편 一部이며 통일신라 토기편이나 신라토기편은 이 다진 점토층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적석고분 축조시에는 先史土器와 삼국토기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삼국토기 중에서도 신라 토기편이나 백제토기편은 다진 점토층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몇 점의 고구려계 灰白色 토기편이 나왔다. 특히 약한 적자타문을 가진 고구려토기편은 이 지층 바로 위에서 상당량 채집되어 이 고분의 연대나 문화성격을 추정케 하여 주고 있다. 결국 이 고분은 삼국시대의 것이며 고구려계 문화의 연관이 있는 유적으로 판단되었다』⁹⁾.

이 고분 역시 변형고구려계 적석고분임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러한 사실은 상당기간 동안 이 지역을 점유했던 고구려 세력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백제계 고분의 발견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정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考古學的 조사 결과가 문헌학적 연구 결과와 대비되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지역의 삼국시대 초기세력의 분포상태를 명확하게 정립해 볼 수도 있겠다.

이 이외에 조사된 삼국고분으로 연곡리 고분들을 들 수 있다. 이 고분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고분은 이미 盜掘 痕跡이 있는 것을 확인한 고분이었으나 그 유구의 정확한 조사는 이 지역 삼국고분의 성격규명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겠기에 발굴을 한 것이다.』

이 고분 조사에서 일부 제위치에서 옮겨지지 않은 환석들을 찾을 수 있어서 이 고분의 환석을 돌린 크기를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조사한 결과 이 환석을 직경 약 4m의 묘곽을 중심으로 하여 원형으로 돌려져 있었으며 묘곽을 뒤덮은 봉분의 토양유실을 막는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환석의 돌려져있는 크기로 보아 이 고분은 淸風地域의 다른 삼국고분보다는 그 규모가 작은 것이었다.

환석을 이룬 석물은 길이 약 30cm, 幅 18cm, 두께 10cm 크기의 川石과 山石을 섞어 사용하고 이들 큰돌 사이는 길이 약 10내지 15cm 크기의 河川 자갈을 깔고 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환석의 中心部位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최초로 길이 약 2.9m x 3m, 幅 2m x 2.2m의 네모지게 판축한 진흙층이 출현하였다. 長方形의 이 판축 부위는 황갈색의 점토를 다져서 이룬 것으로써 그 옆의 原지층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유구구조였다.

表土 下 5.5cm에서 나타나는 이 판축부위는 최초에는 매장시설인 묘곽의 상부구조인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 부위의 發掘結果 이것은 이미 도굴당한 묘곽의 하부 遺物층의 一部인 것이며 그 밑의 판축은 상부 판

축면에서부터 길이 80cm 정도 밑에서 점토를 다져서 묘곽의 기단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고분을 쓰기위해서 약 80cm x 1m의 두께로 점토 판축층을 만들고 그 위에 묘곽을 설치한 후 주위에 환석을 돌려놓고 봉분을 성축한 그런 구조였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 고분에서 발견된 川石과 山石의 양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묘곽전체를 이러한 돌로 복개할 수 있는 量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석물은 주위에 두터운 환석층을 이루는데는 충분하여 이곳에서 川石이나 山石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 묘곽에서는 전체묘역을 川石이나 山石으로 복개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다만 환석층을 만들어 토사의 流失을 막는 장치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유구의 상부구조가 완전히 파괴되고 또 묘곽이 노출되는 狀態까지 도굴을 당하여 전혀 부장품이나 다른 유물의 수습이 가능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만 여러 시대에 걸친 토기편이 발견되었는데 三國土器 중 고구려계의 白色系토기편이 나타나고 그 외에 통일신라 시대의 문양이 있는 청회색토기편이 채집되어 이 고분은 삼국시대고분으로 고구려계 고분이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해 주고 있다.

이 고분은 삼국고분의 환석조사때에 A·D Section의 北쪽 끝에서 길이 30~35cm, 두께 20~25cm 크기의 川石과 山石등이 집중되어 거의 원형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원형을 이룬 층상부를 가리고 있었던 50cm 내외 길이에 두께 15cm의 판판한 板石을 발견하여 주의 를 하면서 이의 노출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D. Section의 외곽부분에 내버려진 길이 1cm 10cm, 두께 15cm, 幅 25cm의 판석도 역시 원래 이 적은 환석상부를 가리고 있던 原石이었으나 도굴시 제거되어 원위치를 벗어 난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은 환석은 원래 있었던 三國時代 고분의 가장자리에 새로만 들어섰던 것으로 원환석을 옮겨놓고 새로이 직경 6m 내외의 환석층을

만들고 그 위에 板石을 덮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 판석 밑을 조사한 결과 十字基準點에서 一、六七cm 되는 곳에 특과 연결해서 小환석의 D. Section 가장자리 가까운 위치에서 통일신라시대 의 완전한 골호 一점이 발견되어 이 小환석의 장치들이 이 골호 매장을 위한 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골호를 매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삼국분묘의 일부를 다시 파서 골호 매장을 위한 석물환석을 세우고 그 속에 골호를 안치한 것을 알 수 있었다⁹³⁾.

결국 삼국시대 고분과 통일시대 골호매장분이 함께 이 고분조사에서 발견되어 삼국의 세력이 신라에 의해 통일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사거리 B지구에서 발굴조사된 고분은 최초의 지표조사 결과와는 달리 발굴결과 조선조 민묘임이 밝혀져 이 고찰에서는 취급하지 않겠다. 충주면 수물지구내에서 조사된 고분외에 정식발굴 조사된 중요한 고분은 청주시 신흥동 백제고분 발굴 조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중요한 발굴조사는 수많은 백제토기와 무기, 마구류 등과 특별한 묘제 등이 정식발굴 조사되어 삼국시대 고고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유적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 고분에 대해서 발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新鳳洞 古墳群에는 土墳墓、竪穴式石室墳(石槨墓) 橫穴式石室墳의 三種이 뒤섞여서 分布하고 있다.

이번의 調査는 大部分의 盜掘된 土墳墓의 조사가 되었고, 뚜렷하게 石室墳이라 생각되는 것은 一基가 調査될 수 있었을 뿐이므로 分布가 混雜하게 三種의 墓制가 同時에 섞인 것인지, 아니면 各各의 墓制에 따라 分布地域이 다른 것인지를 뚜렷하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竪穴式石槨墓는 一基가 山七—八番地의 과수원內의 곳에 이미 오래전에 盜掘된 것이 一基가 있었을 뿐이었고 정식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 墓는 이번 調査한 너당마을 뒷산인 一〇三、八m의 野山에 位置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北쪽으로 약 五〇〇m 떨어져 있다(도면 二의 □꼴 부분)』.

標高 一〇三、八m의 지역에서는 橋穴式石室墳 一基와 墓制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石材를 使用한 三—四基가 있었다.

橫穴式石室墳은 頂上에서 南쪽으로 약 三〇m 내려온 사면에 位置하고 있으며, 墓制가 확실치 않은 石室墳(대체로 橫穴式石室墳이 完破된 것으로 생각됨)은 頂上에서 東쪽으로 약 一〇〇m 떨어진 곳으로서, 이곳에서 東으로는 급한 경사가 이루어지지만, 오히려 솟은 곳에 位置한다. 비교적 이들 石室墳들이 野山의 頂上 가까이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이다. 山頂上 東端部쪽의 남쪽사면에 二基의 盜掘破壞된 무덤이 있는 바 이들도 石材로 보아 橫穴式 石室墳이었던 것으로 추측되었지만 調査하지 못하였다.

土墳墓는 標高 一〇三、八m의 野山北·東·南 斜面에 매우 근접하여 다다다다 불계 分布하고 있다. 東쪽 支脈의 경우는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경사가 완만한 곳이나 급한 곳이나를 막론하고 이곳 저곳에 盜掘墳이 있어서 매우 密集된 分布임을 알 수 있었다. 特別한 樣相은 비교적 낮은 位置의 土墳에서 出土되는 유물들에게서 卵形土器系가 있었고, 位置가 높은 곳에 있는 土墳墓의 경우에는 馬具의 武具類가 거의 例外없이 있었다는 點이다. 따라서 무덤을 만든 時期와 墓制上에 있어 낮은데에서 높은곳으로 가면서 土墳墓에서 橫穴式石室墳이 나타나는가 하면, 遺物狀으로 본다면 낮은데부터 높은 곳으로 차츰무덤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풍겨주고 있으며 山의 稜線上과 斜面과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土墳墓에 있어서는 急傾斜라 하더라도 稜線地域에 規模가 큰 것이 있는가 하면 斜面쪽의 遺物狀이 비교적 빈약하며 遺物의 年代도 뒤지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었다. 大部分의 盜掘破壞된 石室墳들은 山頂 가까이와 稜線을 이루는 비탈면을 擇하고 있는 느낌이였다.』

新鳳洞의 石室一號墳은 可樂洞三號墳에서 公州 宋山里 一—五號墳、熊律洞石室墳으로 이어지는 百濟의 石室墳系列에 包含되는 것이며, 그 編年은 遺物에서 編年을 결정지를 뚜렷한 것이 없으나 五세기 중엽에서

후엽경까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고자 한다.

新鳳洞古墳群은 오히려 土墳墓가 절대多數가 調査되었는 바, 이들 土墳墓들은 四세기에서 五세기에 걸쳐 점차적으로 築造되었다고 보아진다. 型式의 多樣함과 遺物相이 그러하고, 또한 하나의 土墳과 다른 土墳이 서로 接하면서 築造되는 樣相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가운데서도 馬具類를 伴出하는 土墳墓들은 土器의 樣相이 原城郡 法泉里의 百濟古墳과 天原郡 花城里의 百濟古墳 그리고 서울 石村洞을 中心으로 나타나는 百濟系의 土器相과 너무도 有似性을 가지고 있어서 四세기중엽에서 말기에 걸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一四號 土墳墓는 규모와 遺物相이 비교적 完然하였는 바 鐵頭大刀의 形式을 생각하면 五세기 초반을 앞서는 四C末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馬具·武器를 伴出하는 土墳墓들도 四C中葉~五세기 劈頭에 걸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土墳 九號와 一三號는 馬具와 武器를 伴出치 않은 것들로서 약간 性格이 다르고, 이들은 八號에 대한 九號가 순장적인 것이고, 一四號에 대한 一三號가 또한 순장적인 것이 아니라면 年代는 적어도 半世紀以上 뒤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곳 古墳群은 그 確實한 性格의 규명을 위해서는 좀더 調査되어야 하겠고, 또한 既調査된 資料도 각각의 專門的인 分析에 의해서 格과 編年이 修正되어질 것을 期待하며 이만 그치는 바이다⁹⁾.

결국 이 보고서의 서술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신봉등 백제고분조사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대폭 수정 정리할 수 밖에 없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고분의 성격은 결국이 中原文化유적의 관점에서든 대단히 고려해야 할 고분문화임을 알게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正式發掘 調査된 忠원문화지구 遺蹟 중 고분에 관한 것을 살펴 보았다. 그 結果 이 지역이 三國의 勢力각축의 중심지였다는 一般的인 사실을 증거로 가지고 입증해 주는 作業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中原지구 문화유적 내의 고분 중에는 아직도 조사되지 않은 고분군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의 調査結果로 미루어 보아 보 다 충실한 古代史의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三國 중에 한 국가의 文化만이 發見되는 타지역의 유적과는 아주 판이하게 三國의 각 시기의 문화가 골고루 이 忠원지구 문화유적속에서 發見된다는 사실은 이 문화지구의 특이성과 중요성을 더욱 실감케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는 연구조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五、忠원문화권 設定의 問題

忠원문화권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권의 실정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 걸쳐서 그 가능성의 여부를 타진해 보고 있다. 이러한 문화권의 설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고고학적 分野에서 살펴본 것이 이 논고이다. 하나의 문화권이 설정된다고 하는 것은 基本的으로 타문화권과도 구별이 되는 독특한 文化의 發生을 그 근거로 하여야 한다.

先史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독특한 地域的 先史文化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그러한 문화권 設定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文化圈이라는 개념을 문화 유적의 집중지역이라는 의미에서使用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忠원문화권이라는 하나의 문화지구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독자적인 문화권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問題가 있다. 그래서 忠원지구에서 發見되는 先史遺蹟에 대한 獨자의 存在 여부를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다.

忠州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發見되는 考古學的 資料가 이 忠원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나 하는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하게 밀집된 先史時代 遺蹟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先史時代의 考古學的 遺蹟을 기초로 하여 이 地域을 하나의 특수한 문화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나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의 調査分析 結果로써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는 않았다. 舊石器文化의 경우, 점말, 두루봉을 위시한 유적들은 홍적세 古生物 化石 출토지역으로써 그 重要性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사기리 등 기타 지역의 舊石器遺蹟의 發見은 이 지역이 舊石器遺蹟의 밀집지대임을 알려주어 學問的 重要性을 공인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 舊石器文化 유적이 하나의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유래가 없는 舊石器文化 집중지역인 것은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지만 이렇게 하여 밝혀진 여러 遺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韓半島의인 文化 개념에서 파악되어야 될 것이며 결코 충주지역의 독자적인 것으로서 정리될 수는 없겠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石器는 석장리등 한반도의 다른 유적의 유물과 연관되는 形式의 것이기 때문이다. 빗살무늬 石器文化도 빗살무늬 盛期와 後期에 속하는 파편들이 發見되고 있으며 이러한 잠정적 文化時期의 設定도 漢江下流에서 出土되는 石器의 形式設定에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빗살무늬 石器 역시 漢江下流에 형성되었던 빗살무늬 石器와 직접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강 하류 등에서만 發見되었던 이러한 유적이 南漢江 중류 전역에 걸쳐서 存在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실이며 이 중심부위가 충주를 중심으로 한 中原 文化 地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똑같은 사실을 우리는 무문토기의 경우에도 알 수가 있다.

忠州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우리는 방대한 무문토기 遺蹟의 발견이 이루어졌고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 얻어진 結論은 한반도의 초기 무문토기에서 후기 무문토기에 이르는 모든 시기 구분의 것이 發見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지역의 무문토기 文化도 한반도적 무문토기 文化의 개념에서 정리될 수 있는 것이지 이 지역의 독자적 發生文化로써 볼 수 있지는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대유적은 지금까지는 여주 흙암리 遺蹟 외에는 없다는 것은 이 지역 유적의 重要性을 한층 더 철실하게 인식시켜주고 있기는 하다.

初期鐵器 시대의 文化에 대해서는 충분한 학술조사 發掘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文化 遺蹟 역시 忠州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이 初期철기시대 文化 역시 漢江 하류와 연관되어 있는 한반도적 性格으로 정리될 성질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충원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先史考古學의 경우 결코 하나의 自發生文化圈으로 設定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의 독특한 先史時代문화권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先史考古學的 증거는 현재까지 얻어낼 수 없었다. 歷史考古學的 경우는 선사고고학의 경우와 다른 결론이 얻어질 수 있겠다. 歷史時代 考古學 遺蹟으로써 이 지역 내에서 發見되는 것에는 古墳 山城 등이 있다. 이러한 遺蹟을 조사함으로써 얻어진 結論은 先史考古學과는 다른 관점에서 정리할 수도 있다. 그것은 歷史時代의 여건으로 미루어서 그 어떤 지역적 특성이 發生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특성이 한 지역의 독특한 性格으로 성립하여 하나의 文化圈으로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忠州를 중심으로 한 중원지역의 歷史時代의 性格 設定을 하기에 충분한 考古學的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現在까지 발굴조사된 古墳의 遺蹟을 통해서 볼때 三國이 서로 이 지역을 사이에 두고 각 축장을 이루었던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三國의 勢力 다툼의 결과 그 후 이 지역적 새로운 형태의 性格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번 조사에서 얻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高句麗系 고분도 이 地域에서 發見되고 백제계 고분도 發見되고 新羅계 고분도 發見된다는 사실과 그 결과 이 지역에는 그 어느 한 國家性格의 勢力만이 存在하지 않고 이 모든 勢力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文化의 혼합성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의 혼합성이 이 지역의 독특한 性格의 文化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韓半島 내에서 이와

같은 여건의 文化的 性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이 地域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지역의 三國의 모든 遺蹟을 조사하고 그것의 연관성을 살피고 그 결과 나타난 문화현상을 저출해 냈을 때에 우리는 中원문화권이 라는 새로운 개념을 設定할 수도 있겠다. 일단 이러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 先史時代文化에 있어서 中원문화권이라는 개념을 整理해 볼 수는 있다고 본다.

六、맺음말

지금까지 총주를 中心으로 한 中原地區文化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연구결과를 大略 살펴 보았다. 그 結果 最近까지 그 重要性이 인식 되고 있지 않았던 이 地域이 韓半島 先史古代文化의 새로운 해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 사실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이 地域의 先史古代文化가 獨自的으로 形成된 文化는 아니다. 그러나 漢江과 금강상류에서 수없이 發見된 그리고 조사된 많은 先史文化에 대한 지금까지의 知識은 극히 한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 地域의 遺跡의 조사 결과와 알려 주었으며 결국 이 지역 내의 先史文化 調査結果와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한반도 中部地域 先史古代文化의 여러 文化性格과 變遷상의 位置 등을 확정지어 줄 수가 있다.

특히 三國時代의 勢力 各축의 요지였던 이 지역의 遺蹟들은 그것의 조사를 통해서만 古代史의 상당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다. 高句麗, 百濟, 新羅의 세력 다툼과 그 成果가 이들 古墳의 조사에 의해서 실증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遺跡이 가지고 있는 重要性을 새삼 알게 해 주고 있는 것이다.

三國時代 文化에 관해 韓半島 어느 지역에서 보다 더 많은 學術的 정보를 이 內陸地域의 中原地區文化에서 찾아질 수 있으며 그런 여건 때문 에 이 지역의 독자적 性格의 형성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종합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은 때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사실들이 앞으로의 學界의 관심을 모을 수 있게 해 주고 있고 또 더 자세한 조사 연구를 進行시켜야 하는 重要性을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이 지역의 특수성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歷史·考古學의 입장에 새로운 性格의 中원 문화권 設定의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高麗, 朝鮮朝를 통한 文化遺蹟들이 이곳에 수없이 산재해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지고 있어서 韓半島의 모든 文化時期의 중요한 遺蹟의 집중지역임을 알 수 있고 과거의 조사에서 이 지역이 소외되었던 것은 우리의 반성을 촉구하게 한다.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中原先史文化地區에 대한 最近의 學界의 관심은 당연한 귀결이며 또 이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보다 철저한 學術調査를 통해서 韓半島 先史文化의 진정한 內容의 整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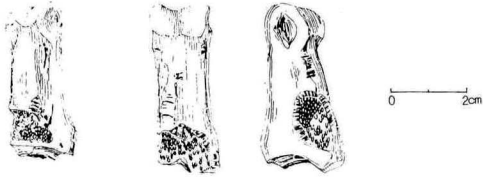
그동안 많은 學界 속에서 이 지역에 산재한 先史古代文化 調査에 참여한 수많은 學者들의 개척적 努力은 韓國先史 문화연구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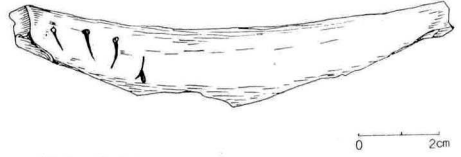
- ① 水沒地區 地表調査 報告書.
- ② 水沒地區 發掘調査 報告書, 서울대, 경희대 조사지역의 빗살무늬.
- ③ 水沒地區 發掘調査 報告書, 서울대, 경희대, 기타 대학무문도기.
- ④ 水沒地區 發掘調査 報告書 사기리 구석기.
- ⑤ 水沒地區 地表調査 報告書.
- ⑥ 水沒地區 地表發掘調査 報告書.
- ⑦ 水沒地區 地表調査 報告書.
- ⑧ 水沒地區 調査報告書, 두루봉, 점말, 대청댐 보고서.
- ⑨ 八二,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 ⑩ 一九八三 경희대 발문지.
- ⑪~⑬ 八二,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査 略報告書.
- ⑭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八三, 경희대 발문.

- ①7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 ①8 大清댁 水沒地區 遺蹟 發掘報告書 一九七九.
- ①9~②2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財 地表調查 報告書.
- ②3~②6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 ②7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財 地表調查 報告書.
- ②8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 ②9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財 地表調查 報告書.
- ③0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 ③1~③3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財 地表調查 報告書.
- ③4~③6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 ③7~③8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財 地表調查 報告書. 八三, 경희대 발간.
- ③9~④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覽上卷 一九七七.
- ④4 忠원 문화 유적 분포도 색인 一九八一.
- ④5~④7 文化遺蹟總覽 上卷.
- ④8~④9 忠원 문화 유적 분포도 색인 一九八一.
- ⑤0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 ⑤1~⑤4 忠원 문화 유적 분포도 색인.
- ⑤5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 ⑤6 忠원 문화 유적 분포도 색인.
- ⑤7~⑤9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 ⑥0 韓國史研究會, 韓國史研究 一一, 一九七五.
- ⑥1 이영조, 忠원 두루봉 제2굴 구석기문화 중간보고서 一九八一.
- ⑥2 이영조, 大청댁 水沒地區 遺蹟 發掘 報告書 一九七九.
- ⑥3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 ⑥4 韓國史研究會, 韓國史研究 一一, 一九七五.
- ⑥5 忠원 문화 유적 분포도 색인.
- ⑥6 一九八二年八月 내한한 D. Clark 교수의 대답에서 Clark 교수는 이 유물이 설치된 목적을 하는 취파의 적인 동물에 의해 잘려버린 뼈로 본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 ⑥7 忠원 문화 유적 분포도 색인 p. 11,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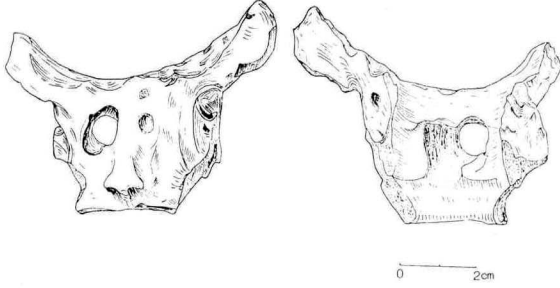
- ⑥8 忠원 두루봉 제2굴 구석기문화 中間報告書 p. 23.
- ⑥9 忠원 두루봉 제2굴 구석기문화 中間報告書 p. 33.
- ⑦0 忠원 두루봉 제2굴 구석기유적 中間報告書 pp. 60-61.
- ⑦1 忠원 두루봉 제2굴 구석기유적 中間報告書 p. 62.
- ⑦2 忠원 두루봉 제2굴 구석기유적 中間報告書 p. 63.
- ⑦3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 382.
- ⑦4 大清댁 水沒地區 유적 發掘調查 報告書 p. 24.
- ⑦5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p. 108-110.
- ⑦6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p. 169-170.
- ⑦7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p. 209-210.
- ⑦8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 261.
- ⑦9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 301.
- ⑧0 韓國支石墓研究.
- ⑧1 大清댁 水沒地區 遺蹟 發掘調查 報告書 pp. 45-63.
- ⑧2 김재원·윤무병, 一九六七, 《韓國支石墓研究》 九九.
- ⑧3 이러한 예는 팔당댁으로 수물된 양평 양덕리(이영조, 一九七五) 양평 양덕리 고인돌 발굴일고(《韓國史研究》 一一, 五七七)와 밀양 조음리(《빛깔》 五七)에서도 확인되었다.
- ⑧4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p. 249-250.
- ⑧5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 189, pp. 287-288.
- ⑧6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p. 306-308.
- ⑧7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p. 164-165, p. 195.
- ⑧8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p. 207-209.
- ⑧9 大清댁 水沒地區 遺蹟 發掘報告書 p. 47.
- ⑨0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 53.
- ⑨1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p. 144-148.
- ⑨2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p. 149-150.
- ⑨3 八二, 忠州댁 水沒地區 文化遺蹟 發掘調查 略報告書 pp. 223-225.
- ⑨4 충북대학교 박물관, 清州新鳳洞 百濟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 一九八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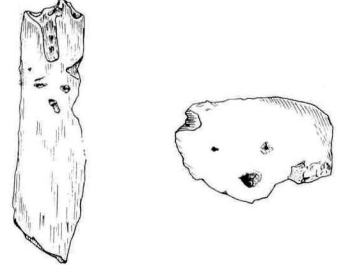
치레걸이로 노고된 두루봉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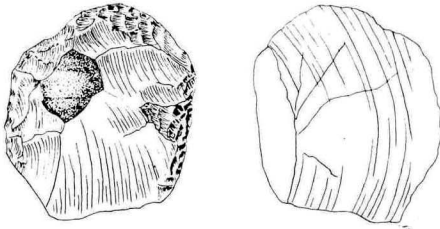
새겨진 예술품으로 보고된 두루봉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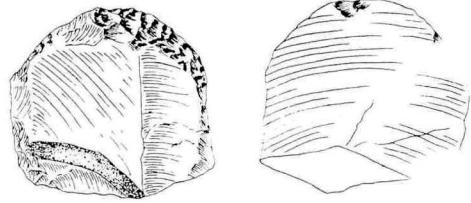
짐승모양 예술품으로 보고된 두루봉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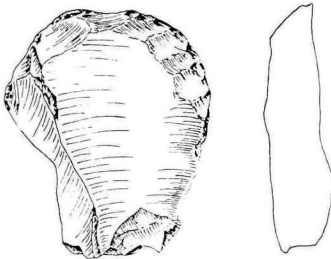
얼굴모양 예술품으로 보고된 두루봉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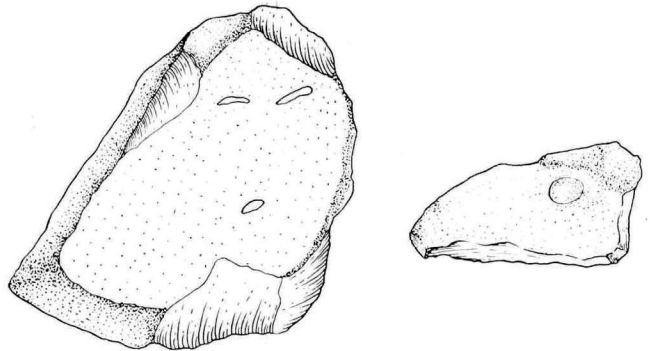
「밀개」로 보고된 사기리 유물



「동근밀개」로 보고된 사기리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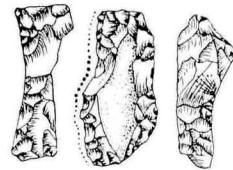
「밀개」로 보고된 사기리 유물



조각품으로 보고된 대청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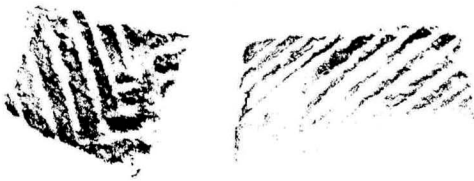
석기로 보고된 대청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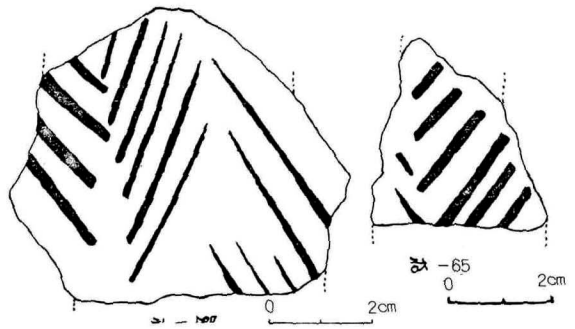
석기로 보고된 대청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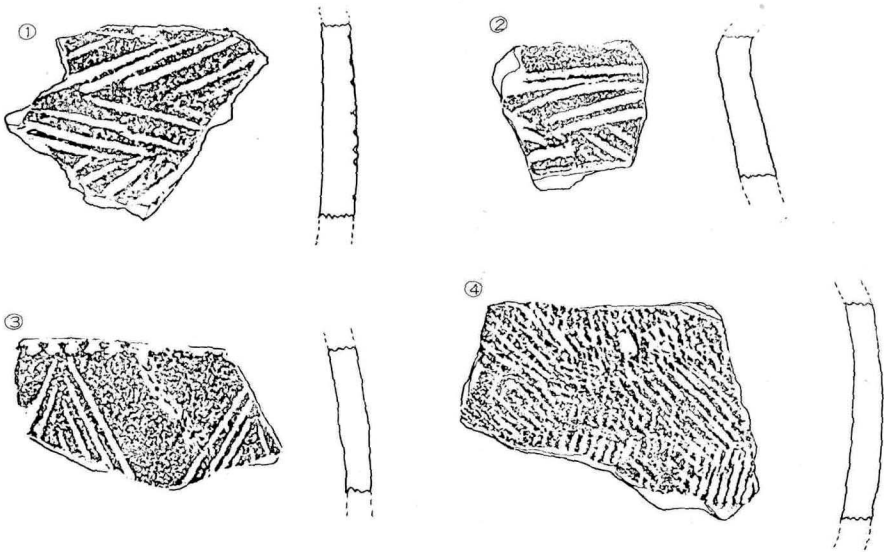
명서리 빗살무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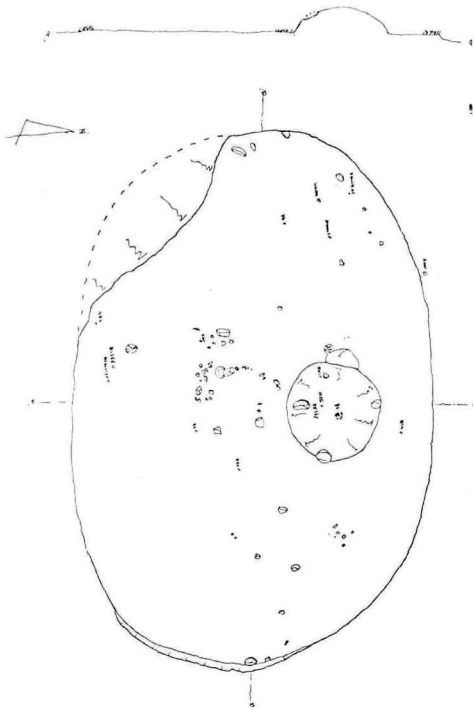
지동빗살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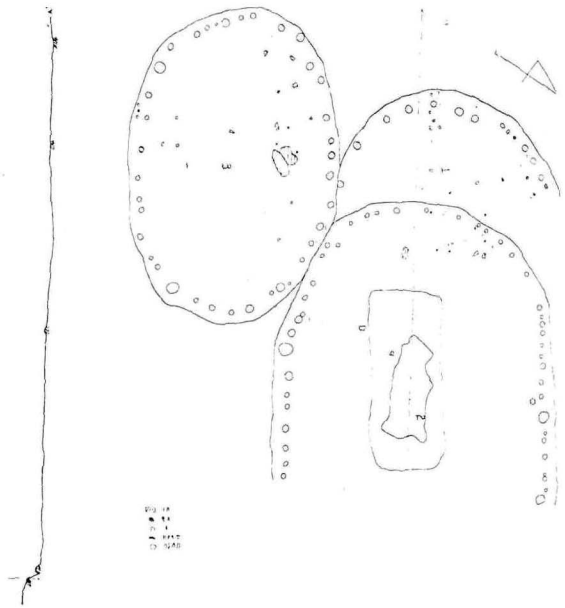
황석리 B지구 출토 빗살무늬 토기편



양평리 빗살무늬 토기편



A-3-3 지점에서 나타난 住居址 實測圖



계산리 B지구 주거지 1, 2, 3평면 및 단면도

양평 무문토기 주거지



계산리 B지구 주거지 3호
출토 미완성 돌바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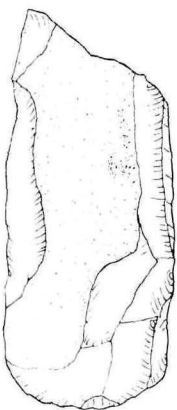


계산리 B지구 주거지 2호
출토 석촉 (반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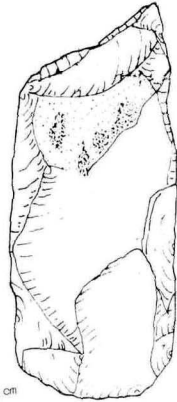
0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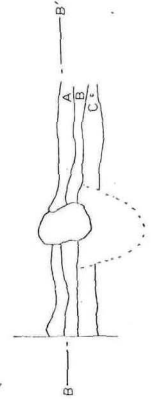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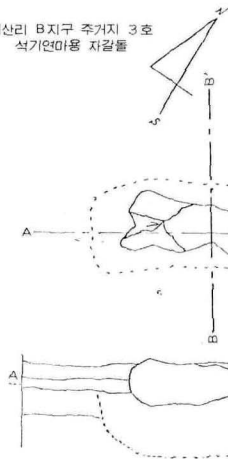
계산리 B지구 주거지 3호
석기연마용 자갈돌



계산리 B지구 주거지 3호 출토
미완성 석부



0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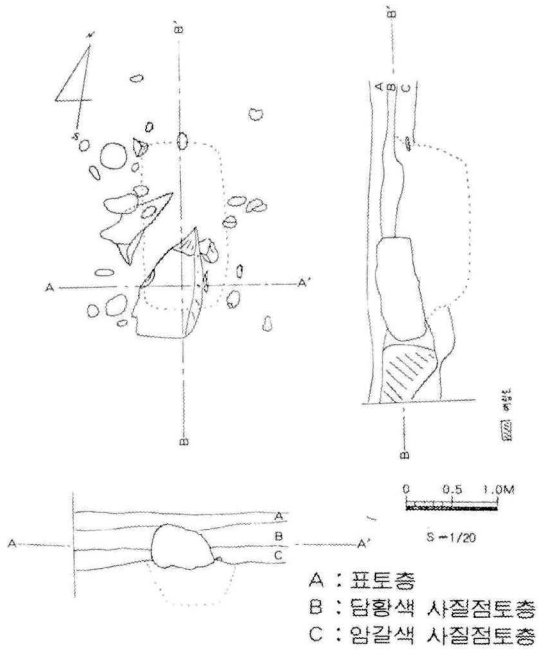


0 0.5 1.0M

- A : 표토층
- B : 담황색 사질 점토층
- C : 암갈색 유기물질 포함층

S-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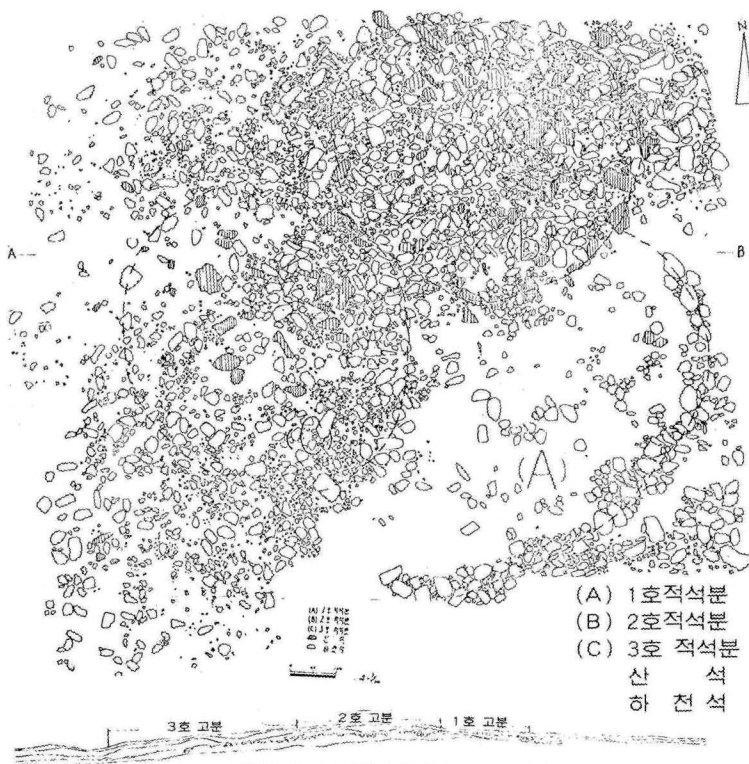
계산리 B지구 지석3 평면 및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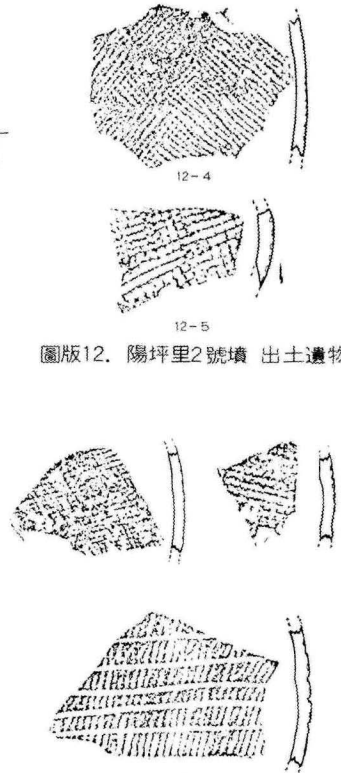
계산리 C지구 지석2 평면 및 단면도



A-3-2-c pit 積石遺構 實測圖



계산리 A지구 원형적석고분 평면 및 단면도



圖版12. 陽坪里2號墳 出土遺物

양坪리 삼국토기